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제1594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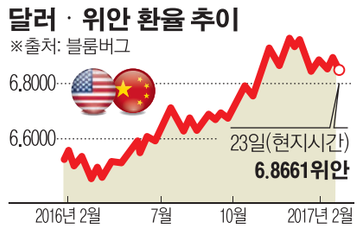
제주에 먼저 온 봄소식



남녘으로부터 봄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의 유채꽃밭이 노란 물결로 뒤덮여 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中 환율조작국 지정’ 명분 없어진 트럼프

므누신 재무장관 “기존 규정 준수”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만 해당
한국도 사정권…경계 늦춰선 안돼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환율조작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재무부의 4월 환율정책보고서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취임식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도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Grand Champion)’”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방송과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재무부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환율조작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프로세스대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아시아 경제 담당 선임 고문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므누신의 중국 위안화에 대한 발언은 현실과의 랑데뷰를 반영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환율에 대해) 보다 전통적인 자세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전날에도 달러화 강세에 비판적인 트럼프와 달리, 강달러 노선을 유지해온 기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의 말대로 미국이 기존 규정을 준수한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명분은 없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200억 달러(약 22조7300억 원)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GDP 대비 2%가 넘는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가운데 무역흑자 한 가지만 해당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4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앞서 FT가 중국·일본이 아니라 한국·대만이 실질적 환율조작국이라고 비판한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트럼프의 사정권 안에 있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고객·주주·사회 이해관계자 행복이 우선”

‘이윤 창출’ 정관서 지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윤 극대화’ 故최종현 회장 이념 정관서 삭제하고 ‘행복추구’ 담아
내달 하이닉스 주총에서 수정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과감히 정관에서 삭제했다.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극대화’라는 새 경영철학을 담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24일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SK그룹은 정관 변경을 통해 그룹의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키로 했다. 첫 시작은 SK하이닉스로, 내달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철학과 기업문화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도 이 같은 내용으로 연이어 정관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기존 ‘기업은 경제 발전 기여와 함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고 바뀐다.

특히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극대화’라는 최종현 회장의 경영 이념을 이어받아 명시됐던 ‘이윤 창출’이라는 문구를 과감하게 정관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로 변경, 최태원 회장의 신념을 반영했다.

최 회장이 강조한 ‘행복’은 SK그룹의 경영철학으로, 최근 개정한 ‘SKMS(SK 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CEO 세미나 때 “우리가 행복하려면 고객,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전제돼야 하고, 우리의 행복을 이들과 나눠야 한다”면서 개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SK그룹 측은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사회와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관 변경에까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를 비롯, 주요 계열사들도 정관 변경을 통해 새로운 경영철학 실천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17조 원의 투자 계획도 새 경영철학의 가치 아래, SK 구성원은 물론 고객, 주주, 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더욱 키우기 위해 추진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자살보험금 미지급’ 8시간 마라톤 회의

중징계했지만 형평성 논란

빅3 ‘일부 영업정지’…중소형사 반발



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관련기사 2면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한화·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항목은 자살보험금 약관 오류 기재로 문제가 된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에 국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로 의결됐다.

대표이사 제재 역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외 3사의 관련 임직원은 면직~주의 제재가 내려졌고, 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3억9000만~8억9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8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제재심 시작 전 일부 대형사는 추가 자료를 제재심 측에 전달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이 열리기 4시간 전에 ‘미지급금 전건 지급’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금융당국에 백기 투항했다.

3사의 변론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순으로 이어졌다. 변론 시간은 삼성생명이 3시간 반으로,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시간 반가량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작년 5월 23일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로 제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9개월 만에 자살보험금 이슈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중징계를 사실상 주도했다. 앞서 최정예 검사역을 대거 투입하면서 중징계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알렸다. 이후 업계의 여러 협상 시도도 거절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조정할 수도 있다.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 절차상 이번 중징계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진웅섭 원장이 올린 제재 안건을 감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빅3’에 대한 중징계가 발표되자 금융당국의 계도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보험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영업 피해가 미미한 ‘일부 영업정지’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최순실 은닉재산 뒤진다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순실(61) 씨와 일가의 재산 규모 및 형성 과정을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국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이달 초부터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현재 최 씨 일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30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최 씨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보다 구체적인 재산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이 100억 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허창수, 또 한번 전경련 구원투수로

차기 회장 유임…혁신위 구성 쇄신안 마련 박차



상근부회장에 권태신 한경연 원장

허창수〈사진〉 GS 회장이 또 한번 전국경제인연합회 구원투수로 나선다. 허 회장의 유임으로 쇄신동력을 얻은 전경련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쇄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4일 전경련은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해 회장단과 명예회장 등 재계 원로들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허창수 회장이 현재 전경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현 사태를 가장 잘 수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제36대 전경련 회장으로 허창수 GS 회장을 재추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경련은 상근부회장으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허 회장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전경련이 여러 가지로 회원 여러분과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환골탈태해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 회장은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투명성 강화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 3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경유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과 회계 등 전경련의 모든 활동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혁신위원회는 허창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내부 인사 3인과 명망 있는 외부 인사 3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moon@

이슈 & 인물 **이강수** 중한자동차 대표 ▶17



가성비를 무기로 장착한 중한자동차의 SUV ‘켄보 600’의 기세가 뜨겁다. 중한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다. ‘켄보 600’ 돌풍의 중심에는 중한자동차의 이강수 대표가 있다. 그는 ‘켄보 600’의 성공 비결을 “수입하기 전에 실시한 시장조사가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싼 가격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사양을 모두 적용했고 초고장력강판을 60%까지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고객 관리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기에 고객 데이터 축적과 판매 네트워크 확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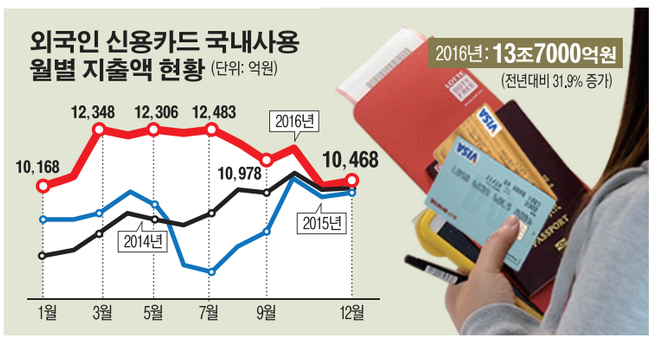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데이터 뉴스 DataNews



외국인, 작년 한국서 13조7000억 긁어… 중국인 60%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신한카드와 함께 조사한 '2016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3조7000억 원으로 2015년보다 31.9% 늘었다. 이 중 중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8조3000억 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 중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전년보다 46.2% 증가해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인 34.8%보다 11.4%포인트 더 높았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도 지출액 증가율이 37.7%를 기록해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일본인의 신용카드 지출액 비중은 13.8%, 미국인은 9.4%로 2015년보다 3.9%포인트, 0.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남주현 기자 jooh@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 70% "혼삶 만족"

40대 이하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의 42%는 평일에도 하루 두 끼를 혼자 먹고, 12%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가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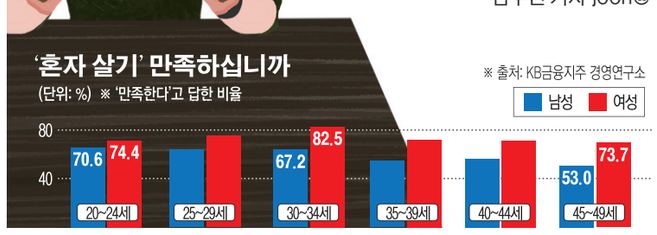
이들 가운데 평일 혼자 두 끼를 먹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경우는 41.5%로 가장 많았다. 하루 한 끼는 혼자 먹는다고 답한 인원도 30.7%에 달했다. 주말에도 하루 두 끼를 혼자 식사하는 비중이 49.2%로 높았다. 세 끼를 모두 혼자 먹는 비중도 17.8%나 됐다.



응답자들은 혼자 사는 것의 장점으로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84.4%)을 첫손에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외로움 등 심리적 안정(46.2%)을 선택했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았다.

남주현 기자 jooh@



"이게 중징계?" 알아서 돈 준 생보사 '허탈'

삼성·한화·교보 '자살보험금 징계' 형평성 논란

재해사망 일부 상품만 영업중지
업계 특성상 신규사업 잦지 않고
주력상품 종신보험도 판매 가능

"빅3 피해 미미… 사실상 경징계"
미지급금 전액지급 11개사 반발

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관 제재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일부 상품만을 판매 중지시킨 만큼 대형 3사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11개 생보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이 의결한 기관 제재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간 재해사망 보장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영업 일부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 보장 상품은 통상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주력상품에 특약 형태로 부가돼 있다. 특약은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인 데다, 정지 기한도 1~3개월에 불과한 만큼 대형 3사에 끼칠 영업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재해사망 보장 특약을 고집하지 않는 한, 종신보험만을 주계약으로 한 상품은 이 기간에도 계속 판매된다.

대형 3사 관계자는 "일부 상해보험에는 주계약으로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생보사들이 그런 상품은 거의 팔지 않는다"며 "통상 재해사망 보장은 종신이나 정기보험 등에 특약으로 돼 있어 고객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상품은 판매가 가능해 별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계약 이전의 결정-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업무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 진출이 잦지 않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3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한 경우는 1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11개사 생보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생보사들에는 수백만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라는 경징계가 내려지기는 했다. 늦게라도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메트라이프 700만 원, 흥국생명 600만 원, 신한생명 500만 원, PCA생명 300만 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는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대형 3사 기관 제재는 형식상으론 중징계지만, 내용상으론 이들 3사에 별 타격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징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사가 이번 징계로 받은 타격은 크지 않다. 결국 다른 금융회사들은 전액 지급을 했는데 이들 회사는 일부 지급으로 끝났다"며 "(금액을 놓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삼성 · 한화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입장 변화

2016년 11월 28일	금감원 중징계 예고 통보
2016년 12월 16일	교보생명 일부 지급 · 지급규모: 약 200억원(미지급금 1134억원의 17.6% 해당)
2017년 1월 6일	한화생명 일부 지급 · 지급규모: 약 200억원(미지급금 1050억 원의 19%)
2017년 1월 초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명목 '위로금'으로 주장
2017년 1월 16일	삼성생명 일부+자살예방기금 · 지급규모: 약 400억원(미지급금 1608억 원의 24.9%)
2017년 2월 23일	교보생명 전건 지급 · 지급규모: 약 672억원(미지급금 1134억 원의 59.3%)
2017년 2월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 삼성생명: CEO 문책경고 및 영업일부정지 3개월 , 한화생명: CEO 문책경고 및 영업일부정지 2개월,교보생명: CEO 주의적경고 및 영업일부정지 1개월

징계 4시간前 "지급" 외친 신창재만 기사회생

〈교보생명 회장〉

'한화' 차남규 문책경고 받아 사실상 '연임불가'
'삼성' 김창수 재임 의결했지만 중징계로 '위태'

생보사 빅3 CEO 희비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이사의 입장도 엇갈렸다.

제재심 의결 사안만 봤을 때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졌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차 사장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19일이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신 회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한숨을 돌렸다. 당초 제재심 징계 원안에는 신 회장 역시 문책경고 대상자였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제재심 4시간전 '전건지급'을 발표한 것이 신 회장 징계 경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원 문책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진웅섭 금감원장이 징계 경감을 무효화할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3사 가운데 가장 셈법이 복잡해진 CEO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다. 김 사장은 차남규 사장과 같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공교롭게 제재심이 열린 당일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의 재선임(임기 3년)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 제재심이나 삼성생명 이사회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 단계라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로 나온 만큼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이뤄진다. 결국 금융위의 중징계 최종 결정과 삼성생명 주총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김 사장의 연임이 판가름나는 셈이다. 삼성생명의 주총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의 정례회의는 다음 달 8일, 22일로 각각 잡혀 있다.

만약 금융위가 삼성 주총 전에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하면 김 사장의 이번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삼성 주총 이후에 징계가 결정된다면 재연임 제한은 임기상 3년 이후로 미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총 전 연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상 김창수 사장을 주총에서 연임 의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CEO 중징계가 나왔지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3사 모두 지급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 회장은 막판에 전건지급을 명목으로 600억여 원만 추가로 지급해 구사일생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3사 대표이사들의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10여 개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3사 CEO는 요지부동했다. 회사 가치를 훼손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오너 리스크가 가장 컸던 신창재 회장이 작년 말에 일부 지급으로 물꼬를 트자, 김창수 사장, 차남규 사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물집(수포)이 생기고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저하로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가축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지켜주세요
- 축산 농가,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여행) 자제
- 차량 방문 시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 도보 방문 시에도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반드시 이용
- 불가피하게 축사를 출입할 경우 방역복과 전용 장화 착용, 가축·사료·장비 등 접촉 자제
- 축사 출입 후 손세척 등 개인위생 철저

축산 농가 여러분, 구제역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
-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철저
- 농장 내 외부인 출입 차단 및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과 장화·장갑 착용과 소독 철저
- 축사 내·외부, 장비 등 주 1회 소독 및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 즉시 제거 및 정기적 구서 작업(쥐잡기 등) 실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의심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삼성전자, 10억 넘는 기부금 집행땐 이사회 의결 의무화

'反기업 정서 해소'… 재계에 부는 '쇄신'바람

종전 '500억 이상'서 기준 대폭 강화… 미래전략실도 조기해체에 나서
2008년보다 쇄신강도 높여… SK도 '사회적 가치 우선' 경영철학 수정

재계가 '반(反)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쇄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본격화된 반기업 정서를 방치할 경우, 경영 쇄신은 물론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자기 반성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그룹 경영쇄신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기부금 액수 기준이 500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외부로 나가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사회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삼성의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 금융계열사는 상근 감사위원을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지난 56년간 이어온 인연에 종지부를 찍는 등, 정경유착 의심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향후 마련될 삼성의 쇄신안에는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고민이 담길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례를 따르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전략실 조기 해체에도 착수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해체 연기 또는 최소한의 기능은 남겨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뒤로 하고, 이달 말 '완전·조기 해체'로 가닥을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28일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각 계열사에서 파견 나온 임직원을 원대 복귀시킬 방침이다.

미전실 해체와 함께 3개월 가까이 미뤄진 사장단 인사도 일부는 조기 단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부회장급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사장급 이상만 5명에 달하는 미전실이 해체되면서, 사장단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의 거취에 따라 계열사 사장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의 경영쇄신안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보다 훨씬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전실이 해체되고 일부 수뇌부의 거취가 결정되면, 그룹 내 세대교체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K그룹도 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고쳐가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SK그룹은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도 윤리경영을 외치며 투명성 강화를 선언했다. 경제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회장단은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공인 스스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나가자"고 결의했다. 안철우·문선영 기자 acw@



허창수 전경련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8대그룹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삼성그룹 경영 쇄신안 변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4월 17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이건희 회장 불구속 기소
4월 22일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 이건희 회장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5월 14일	삼성 사장단 인사
7월 1일	이건희 회장 공식퇴진
7월 2일	삼성 사장단협의회 가동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2016년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출석
12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
2017년 2월 6일	삼성그룹 15개 계열사 전경련 탈퇴
2월 22일	삼성 금융계열사 상근감사직 폐지
2월 24일	삼성그룹 조기쇄신안 착수 – 기부금 이사회 의결 기준 강화 – 미래전략실 조기 해체 – 사장단 인사 조기 단행 전망

주택·건설업계, 집단대출 '몸살'

"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실수요자 내집마련 더 어려워진다"

13개 단체, 정부에 대출 정상화 건의

신규분양단지 52곳 중 집단대출 협약 15곳에 그쳐… 3곳은 대출 거부당해
은행, 집단대출 금리 과도하게 올리면 입주 포기로 미분양 증가 악영향 우려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실태 조사결과

2016년 10월 17일 이전 대출 미협약 사업장 수		2016년 10월 18일~2017년 1월 31일 중 신규 분양 사업장 수
13	협약완료	15
11	협의중	34
1	협약 미체결로 인한 중도금 납부시기 유예	
1	대출거부	3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기에 들어가자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와 금융당국에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정부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올해부터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규분양 단지 52곳 중 금융권과 집단대출 협약이 완료된 단지는 15곳뿐이다. 34개 단지가 여전히 대출 협의를 진행 중이고, 3곳은 아예 집단대출을 거부당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잔금대출에 대해 올해 1월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는데, 실제로는 금융권이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집단 대출금리는 3.7%까지 급등했고, 제2금융권에서는 5% 이상의 고금리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또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고, 이 중에서 집단대출의 비중은 전체 가계부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0.42%인 것에 비해 집단대출은 현저히 낮은 0.29%로 집계됐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공정한 세상" 국회의원·대학교수 앙상블

대선캠프 정책브레인 5 이재명

제윤경·정성호 현직의원 맹활약
"촛불 민심 가장 호응" 유승희 동참
김영진, 조직·정책 협의 등 맡아
손학규계였던 김병욱도 지원사격
교수·법률가 등 전문가 대거 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여의도 BNB타워 캠프에서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민주당 의원 | 유승희 민주당 의원 | 김영진 민주당 의원 | 김병욱 민주당 의원 | 제윤경 민주당 의원 | 정승일 새사연 원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서비스센터' 캠프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등과 비교하면 단출하다. 정책 역시 대규모 자문단을 꾸려 생산해내기보단 소수정예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원 그룹은 크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나뉜다. 의원 가운데선 당내 비주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캠프의 총괄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시장과는 사법시험 28회 동기로 30년간 연을 맺어왔다.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 중진인 유승희 의원은 이 시장과의 특별한 연은 없으나 "이 시장이 촛불 민심에 가장 잘 호응하는 후보"라고 판단, 캠프에 합류한 케이스다. 민평련계로, 당 전국여성위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도 오래 활동했다.

가장 먼저 캠프에 발을 디딘 초선의 제윤경 의원은 이 시장의 대변인으로 활약 중이다. '서민금융전문가'로 불리는 제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시민운동가로서 이 시장과 함께 '주빌리은행'에 몸담았다. 당시 이 시장은 공동은행장, 제 의원은 상임이사를 각각 맡아 서민들의 부채 탕감에 힘을 쏟았었다.

역시 초선인 김영진, 김병욱 의원도 이 시장 지원에 뛰어들었다. 김영진 의원은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전문가그룹 조직과 정책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당내 대표적인 손학규계다. 손학규 전 대표의 지역이었던 성남분당을에 지난 4·13 총선에 나서 손 전 대표의 지원사격도 받았지만, 손 전 대표의 탈당 때 당에 남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시장 만들기'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이다.

학계 전문가들 가운데선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 교수가 정책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 2800만 명 대상 연1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진보 경제학자인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 황승흠 국민대 법학 교수 등도 공정경제분과에서 이 시장을 돕고 있다.

토지주택분과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개혁분과엔 안현호 대구대 경제학 교수, 사법개혁분과엔 나승철 변호사 등이 각각 포진해 있다.

이 시장 측은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꾸렸던 60여 명 규모의 정책자문단과도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정책 조언을 듣고 있으며, 향후 추가 전문가 영입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들을 더 모실 계획이지만 세과시용 명단 발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정책자문 교수들과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그 분들의 연구 성과를 정책화하고 공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성완종 리스트' '터널 디도스 사건'… 과거 있는 남자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맞붙나

홍준표, 특강 다니며 활동 넓혀
김태호 "헌재 결과 나온 뒤 결정"


홍준표 現 경남지사


김태호 前 경남지사

최근 보수진영 대선 주자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반짝 조명'을 받는 가운데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출마설이 제기됐다. 만약 홍 지사와 김 전 지사 모두 한국당 대선 후보로서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 정치 재기를 노리는 전·현직 경남지사 간 대결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홍 지사는 특강을 다니며 활동 반경을 넓히는 전략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1년 10개월의 정치 공백기를 겪어야만 했다. 이에 홍 지사는 공백기 만회를 위해 강연 정치로 대외활동을 재개하는 동시에 언론 접촉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옛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인 김 전 지사 '등판설'이 제기됐다. 김 전 지사는 23일 한 언론을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월 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부인했던 것에서 바뀐 것이다. 또 김 전 지사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바 있어 실제로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현직 경남지사들이 '용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선 각자의 과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홍 지사의 과거는 현재진행형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은 것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이 끝나더라도, 대선 경선과 본선 검증과정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의 과거는 '터널 디도스' 사건 의혹이다. 2011년 4월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지사가 젊은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일한 통로인 창원터널을 막아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이다. 홍 지사와 김 전 지사가 과거를 극복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2월 국회 개혁법안 처리 '無'… 힘 실리는 '연정론'

'청문회 날치기' 여당 반발에 발목
향후 법안 처리도 난기류 감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4718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830건에 그치고 있다.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748건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수차례 회동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전날 본회의에서도 국회는 특검 연장 논란에 사법개혁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31개 법안과 안건만 의결됐다.

경제살리기 입법 논의도 진척이 없다. 정치권의 대선 셈법 속에서 해묵은 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1년째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계속 국회서 잠자고 있다. 노동개혁 4법도 야당의 '청문회 날치기 의결' 논란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홍영표 환노위원장 재발방지 사과 없이는 한국당은 회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법안 처리에도 난기류가 감지된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대연정의 기반을 마련해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협상은 벌써 20번 정도 했는데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與野·非文 "대선 전 개헌" 한목소리

김종인·김무성·정의화 등 회동
이슈 전환으로 '親文' 압박 나서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진원지는 여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문계(비문재인)다. 이들이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한 뒤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통령 임기, 연임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도 회동을 갖고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 비주류인 비문계도 가세하고 있다. 김종인·김부겸·이종걸 등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의원 30여 명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 관련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부 형태·선거제도·사법부 관련 개헌안·기본권·경제질서 등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단일안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싱그런 봄바람에 매력자산 돋아나고

PART1. 사람의 자리가 아니 옷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사회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변화의 물결 선두에는 청바지와 원피스가 있다 장소영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3. 내로라하는 쟁쟁한 여성 패셔니스트 4인 김민정 패션에디터
PART4. 엄마에게 딸의 옷장을 허하라!
PART5. 2030女직장인, 아재의 매력을 말하다
PART6. 아재, 한 끗 차이로 오빠 되다
PART7. 패셔니스타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의 첫걸음, 패션



짙푸른 소나무 사이 농촌계몽운동의 기억이 살아있는 곳
눈 녹지 않은 시골길을 굽이굽이 지났다. 길게 늘어진 소나무의 그림자는 쓸쓸하고 차가웠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끼 낀 옛 유적을 찾아가는 기분. 굽이치는 소나무 숲길을 지나 만난 심훈기념관(충남 당진시 상록수길 97)에는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신, 그리고 작가 심훈이 옛이야기를 나누 듯 서 있다.



Life is a Flower! LIAF·아산세계꽃식물원
봄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이다. 우리네 마음은 춘삼월(春三月)이어도 꽃봉오리들은 아직 몸을 웅크리고 있다. 봄꽃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산세계꽃식물원을 찾는다면 사시사철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일곱 번째 자선 콘서트 여는 윤석화, 윤석화다운 삶을 말하다
불행은 내 장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시작된다


"항상 양보해야 탈이 없어요"
가수협회장 김흥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년 만에 꿈을 이룬 쁘띠프랑스 한홍섭 회장
아름다운 소행성을 꿈꾸는 일흔의 어린 왕자

추억이 방울방울, 오늘은 경양식 먹는 날!
한때 "칼질하러 가자"고 하면 그날은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 먹는 날'이었다. 요즘은 도시락 반찬이나 분식 정도로 생각하는 음식이 돼버렸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좋은 날 귀하게 먹던 고급 외식 메뉴였다. 멋스럽게 차려입고 나가 돈가스를 썰며 기분을 내던 그 시절의 추억을 재현한 맛집 '모단걸응접실'을 찾아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50세 지금이 딱 좋아! 60세 내 모습 기다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승연은 결혼한 지 9년째인데 매일매일 연애하는 것같이 짜릿하고 즐겁단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억만금을 줘도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 이승연은 행복하다. 나이 50에 해탈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녀와의 털털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최은주·최원국·신용재·이경숙·한정숙·조왕래 동년기자
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날 왜 늦은 줄 아세요?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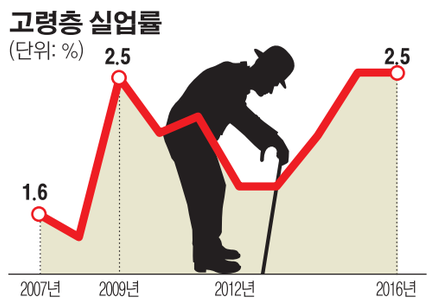
'스포츠레저의 모든 것' 한자리에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017'이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제품 시연을 하고 있다. IT가 더해진 스포츠레저산업계의 첨단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6일까지 열리며, A홀(캠핑카, 수상·수중 스포츠용품), B홀(자전거, 아웃도어용품),C홀(헬스·피트니스 및 스포츠용품) 3개 홀로 이루어져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고령층 실업률 9년새 1.5배 늘었다

2007년 1.6%서 2016년 2.5%로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사업 초점
베이비부머세대 고령층 편입 임박
현재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 높아
성장동력 제고하는 일자리 필요



고령층(55~79세) 실업률이 9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매년 평균 32%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저소득층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실업률은 2007년 1.6%에서 2016년 2.5%로 1.5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이 6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8.1%보다 높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가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고령층 대상 일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4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04년 122억 원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3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1인 가구, 직업이 없는 노인,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 차원에서 노후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가 낮아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으로 취업시장에서 고령층 비중이 큰 상황에서 이들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실업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고령층 일자리 지원정책은 새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지원과 같은 복지성 일자리 제공의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경제성장을 견인한 세대로 지금의 고령층과 비교해 교육 기술 수준이 높아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성격의 일자리 제공 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 공급 확대 때문에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도흔 기자 sogood@

'부실감사·고액연봉' 논란 휩싸인 미래부

경실련 "위탁기관 봐주기" 특별감사 청구
녹색소비자연대 "산하협회장 총리급 보수"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2016년 기준)

기관명	직원 평균 연봉	주무부처
1 한국에탁결제원	1억448만 원	금융위원회
2 한국원자력연구원	9965만 원	미래부
3 한국과학기술원	9895만 원	미래부
4 광주과학기술원	9876만 원	미래부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632만 원	미래부
8 울산과학기술원	9460만 원	미래부
10 한국전기연구원	9426만 원	미래부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 위탁기관 부실감사와 산하협회장 고액연봉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감사원에 미래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를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업무감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협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포함된 민간단체다. 미래부는 협회에 △부정가입 방지 △명의도용 방지 △분실도난단말기 조회 시스템 등의 사무를 위탁해 왔다. 그러나 설립(2013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미래부 공익감사와 함께 진흥협회가 불분명한 사업을 수행하고 불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산하 협회들의 상근 회장·부회장의 고액 연봉도 논란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역시 미래부 산하협회가 상근 회장들에게 국무총리와 맞먹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부회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53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6400만 원)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대통령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은 2억2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고액 연봉도 논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부처 산하기관(324개) 가운데 상위 10개 산하기관 중 6곳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먼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시작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게 우리 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산하기관 보수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조선업 밀집지역 5곳에 15조 민간투자

산업부, 2020년까지 동남권 석화·기계 중심 9조…서남권엔 신재생 에너지 6조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올해 4조 원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15조 원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석유화학·기계·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 중심으로 9조 원, 전북·전남 지역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6조 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 △중앙·지방협의체 △관계부처협의체 등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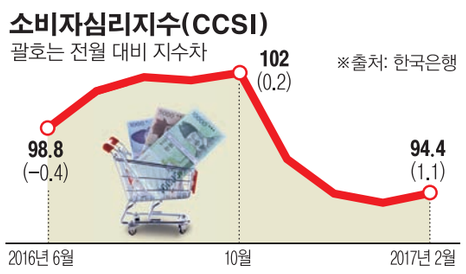
우선 지방자치단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도의 경제·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 사업과 애로를 발굴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규제 해소에 나선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선기자재업계가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등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납품·공정 참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소비심리, 넉 달 만에 올랐지만…

수출회복에 1.1P↑ 94.4
금융위기 직후 수준 여전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자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깜짝 반등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서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에 비해 1.1포인트 오른 94.4로 조사됐다. 소비자심리는 지난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인 95.7로 떨어진 후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이달 소비자심리가 반등한 이유는 최근 수출이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2.3% 증가해 플러스 전환한 이후 올 2월 1~20일에는 전년 대비 무려 26.2%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올랐다. 현재경기판단은 지난달에 비해 4포인트 증가한 55로 집계됐다.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됐다. 현재 생활형편은 지난달에 비해 1포인트 오른 88을 보였고, 생활형편전망도 2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수준전망은 3포인트 떨어진 145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전월과 같은 2.7%를 기록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2.7%로 0.1%포인트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관련 지수와 생활형편 전망이 수출이 오르면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100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박 대통령 선고 직전에 '하야'하면…

"탄핵심판 각하"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최종변론 앞두고 '자진사퇴설' 제기…청와대는 일단 부인

헌재 규정 없어…일부 '각하'땐 '인용' 정족수 모자랄 수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 직후 소추위원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다"며 "그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먼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일단 청와대는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회법 134조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그 대상자는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규정 취지상 대통령도 당연히 사임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결단으로 사퇴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만일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헌재 심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데 있다.

대통령이 먼저 사임해 버리면 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대통령 사임에 관계없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특정 사건에서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도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 최종 선고가 가능하다는 헌재 판례를 근거로 든다.

인용과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면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에도 영향이 생긴다.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를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탄핵 기각 의견이 2명에 불과하더라도 다른 재판관들 의견이 인용 5, 각하 1로 나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

특검, 수사종료 카운트다운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28일 종료 마무리 작업 착수

탄핵·하야되면 檢 기소 이관

마지막날까지 대면조사 의지

정유라씨 체포영장 재청구도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는 정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예산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금 인력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못지 않게 공소 유지도 중요한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수는 총 20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은 남아야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를 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수사를 중단하고 일정 시점까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 동안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특검은 마지막 날인 28일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까지 항고기간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28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검토 중이다.

특검은 덴마크에서 구금기간이 연장된 정유라(21)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정 씨에 대해 발부받은 1차 영장은 조만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정의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모니터 앞에 '특검연장'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특검법 개정안 상정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지막 과제로 둔 특검은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 씨나 김영재(57) 원장 등을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대학가 방구하기 전쟁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전월세 값이 치솟으며 서민들뿐 아니라 새 학기를 맞이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다방에 따르면 이달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1158만원에 월세는 48만원 수준이다.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전월세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폴크스바겐 소송전 2R…이번엔 배상 받나

1년 반만에 집단소송 재개

檢수사서 인증 절차 '소홀' 확인

피해자 입증책임 크게 덜어

배출가스 수치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소비자 소송이 24일 재개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만에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 권모 씨 등 27명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AVK도 소송대리인을 우리나라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으로 교체해 전열을 정비했다. 소비자 대리인은 그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선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AVK가 7년 여에 걸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버 힐 부문장이 약식기소되면서 세계 최초로 독일 본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로서는 입증책임을 크게 덜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폴크스바겐과 AVK는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좌영길 기자 jyg97@

한국지엠 근로자 백혈병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해당" 원고 승소

한국지엠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박준석 판사는 한국지엠에서 일하던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 농도로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 원인, 작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음성인식 UHD tv
리모컨 대신 기가지니를 불러보세요
olleh tv를 켜고 끄고, 채널 이동은 물론, 기가지니의 인공지능이
olleh tv와 함께 당신만을 위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인공지능 홈 비서
대화가 가능한 당신만의 홈 비서를 가져보세요
스케줄 체크는 물론, 궁금하고 필요한 게 생길 때마다 해결해주고
내 기분에 맞춰 대화까지! 당신의 생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harman/kardon 스피커
기가지니의 완벽한 음질로 음악을 즐겨보세요
프리미엄 스피커만의 자연스러운 음색, 풍부한 저음과 청량한 사운드로
콘서트홀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홈 IoT 연동
당신의 집을 진정한 스마트홈으로 만들어보세요
기가지니와 연동하면 집안 IoT 기기들의 조작/관리를 말 한마디로 간편하게!
당신의 집은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이마트 매각’ 기업銀 실적 청신호

보유지분 94만주 블록딜 성공
1935억에 매각…400억 차익실현
매각익 올해까지만 당기순익 적용
1분기·연간 이익추정치 상향조정
다음은 KT&G?…투자심리 자극



IBK기업은행이 보유 중인 이마트 보유 지분(93만9480주, 3.4%)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이 지분을 전량 처분한 까닭은 매각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 차익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9)이 새로 적용되면서 주식매각 차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HSBC증권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한 주당 할인율 4.2%가 적용된 20만6000원에 전량 지분이 소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이마트 블록딜 성공으로 총 1935억 원 규모의 뭉칫돈을 손에 넣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마트 주식 매각에 따른 차익을 당기순이익에 인식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까지라 블록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적어도 400억 원의 매각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이 보유한 이마트 주식은 2007년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아버지의 주식을 물려받으면서 정부에 증여세로 낸 것이다. 정부는 이 주식을 기업은행에 현물출자했다.

당시 이마트 주식의 매입가격은 24만7250원이었으나, 2011년 6월 기업분할 후 재상장하면서 주가는 하향세를 그렸다. 기업은행은 주가가 하락하자 감액손실을 반영해왔다. 감액손실이란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등으로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유 주식은 감액손실 반영 후 장부가를 다시 기재한다. 이마트 주식의 장부가는 2016년 3분기 기준 15만7500원으로, 한 주당 20만 원(할인율 3%) 매각시 세전 399억 원, 주당 20만8500원(할인율 7%) 매각시 세전 479억 원의 매각익 인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성과에도 여유가 생겼다. 매각차익이 지난해 당기순익(별도 기준)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267억 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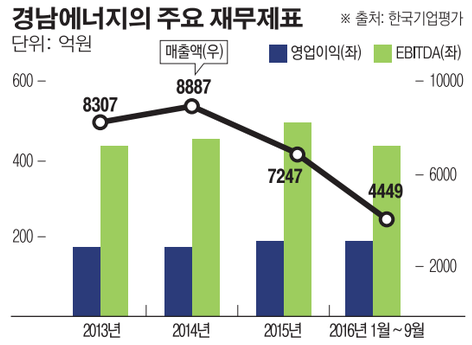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할인율 5%, 세전 437억 원의 매각익 인식을 가정해 기업은행의 1분기 및 2017년 연간 이익추정치를 4260억 원과 1조2900억 원으로 330억 원씩 상향 조정했다”며 “손익 발생 외에 소폭이지만 자본비율이 약 2bp 개선되는데다 또다른 보유 주식 KT&G(6.9%) 처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블록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HSBC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IBK기업은행이 이마트 지분 매각 차익으로 인해 자본비율이 약 2bp(베이시스포인트, 0.02%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아·황윤주 기자 kakim@

경남에너지 정연욱 회장 사퇴
내달 본입찰 ‘꼬리자르기’ 논란

M&A 진행중 최고 경영진 사퇴 ‘이목’
인수 유력후보에 맥쿼리PE 등 해외기관
위로금 등 협상·지자체들 반대 ‘난항’
일각선 “책임회피 위해…” 비판 목소리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의 본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경남에너지의 주요 경영진인 정연욱 회장이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경남에너지 매각주관사인 JP모건은 다음달 3일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본입찰에는 지난달 선정된 6곳의 인수 적격 후보 중 일부 기관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지난 1월 맥쿼리PE, 싱가포르계 케펠인프라펀드, 호주계 프로스타캐피탈, 충남도시가스, 이큐파트너스 등을 인수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이 중 이큐파트너스는 경남에너지 인수를 중도 포기했으며, 유일한 전략적투자자(SI)인 충남도시가스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남에너지 인수전은 맥쿼리PE와 해외기관 간의 경쟁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실상 경남에너지의 새 주인이 결정될 운명의 날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경남에너지 주요 주주인 정 회장이 등기부 등본상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인수합병(M&A) 과정 중에 최고 경영진이 사임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인수합병(M&A)관계자는 “위로금지급 등 직원 보상 패키지 협상을 앞두고 정 회장이 사임하면서 일각에선 책임회피 꼬리 짜르기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도 “실제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는 맥쿼리PE에 대해 경남 지자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이에 대한 부담 차원에서 정 회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맥쿼리PE는 경남에너지 매각 초기부터 유력 인수 후보로 꼽혔다. 맥쿼리 PE는 2012년 세아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도시가스(현 귀뚜라미에너지)를 인수한 뒤 지난해 귀뚜라미그룹에 매각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케펠인프라펀드 등 해외 FI도 인수 의지가 상당해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케펠그룹(케펠코퍼레이션)은 싱가포르의 대형 선박기업이다. 케펠인프라는 가스발전 에너지, 인프라 신탁업, 물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에너지 인수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 프로스타캐피탈의 경남에너지 인수 의지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에 매각되는 경남에너지 지분은 상원컴트루(30.97%)와 2대 주주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27.76%)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비롯해 자사주를 포함한 지분 96.5% 규모다. 매각 가격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김경아·최재혁 기자 kakim@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안진 영업정지 가닥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면서 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결론은 다음달 중 내려지며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 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고재호 전 대표와 정성립 현 대표에게는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조치하면서 이 회사가 총공사 예정원가의 축소조작,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돼 2016년 반기보고서부터 행위 건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45억4500만 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삼정회계법인 매출원가 감사절차를 소홀히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정하면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수위도 영업정지가 유력해졌다.

대우조선해양, 딜로이트안진의 감리 경과

2015년 12월	금감원, 감리 착수
2017년 2월	감리 마무리,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 사전통보
2월 21~23일	감리위, 증선위 등 개최해 제재 수준 논의
3월	감리위, 증선위 추가 개최해 제재안 추가 논의 및 결정

Deloitte.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벌인 시점에 이 회사를 감사했다. 이미 금감원은 이달 중순 딜로이트안진에 감사부문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주 열린 감리위, 증선위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회계사들은 중징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현재 거론되는 딜로이트안진 기관 제재는 감사부문 3~6개월 영업정지, 손해배상 공동기금 100% 추가 적립, 과태료 부과, 대우조선해양 감사 업무제한 등이다. 다만 딜로이트안진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정수천 기자 freshphase@

우리은행 지문인증 서비스 한달 연기
LG폰 적용 모델 확대…범용성 확보

우리은행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뱅킹 지문인증 금융서비스 개시 일정이 한 달간 순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21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 대한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애플의 iOS(아이폰5S 이상)에 이어 이달 말께 삼성전자 스마트폰(갤럭시 S6 이상)에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우리은행 지문인증 금융서비스가 미뤄진 이유는 스마트폰 적용 모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범용성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만 서비스하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LG전자의 제품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우리은행의 지문인증 금융서비스가 본격화하면 LG전자의 G5, V10, V20 모델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지문인증 금융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을 대체한 기존과 달리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입력을 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 지문인증 서비스 대상은 스마트뱅킹의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 신규 등 기존의 모든 금융거래이다.

장효진 기자 js62@




현대차 '아이오닉 PHEV'


기아차 '니로 PHEV'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아이오닉·니로·프리우스… 다음달 'PHEV' 신차 대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보다 주행거리 길고 배터리 충전 이점… BMW·벤츠도 연내 출시 계획

국내 자동차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쏟아진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아이오닉 PHEV'를,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니로 PHEV' 모델을 출시한다. 한국토요타도 내달 프리우스 PHEV 2세대 모델인 '프리우스 프라임'을 국내 선보인다.

PHEV는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을 보완, 외부 전기 콘센트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친환경 차량이다. 전기차 모드로 주행하다가 충전된 전기가 모두 소진되면 내연 기관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다.

현대차 아이오닉 PHEV, 기아차 니로 PHEV의 배터리 사양은 쏘나타 PHEV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배터리 완전 방전 후 완전 충전까지 완속 충전으로 2시간 30분, 220V 전압으로 6시간 정도 소요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환경부 인증을 완료한 아이오닉 PHEV의 전기 주행거리가 약 4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한 니로 하이브리드와 외관이 동일한 니로 PHEV는 새롭게 개발된 PHEV용 파워트레인 시스템 적용이 유력하다.

프리우스 프라임은 배터리 충전 속도가 타 모델에 비해 빠르다. 가정에서 충전하면 100% 충전까지 2시간 30분, 급속 충전 시스템 이용 시 80% 충전까지 20분이 소요된다. 프리우스 프라임은 배터리로만 60㎞가량 주행할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별로 전기 충전소 확대를 독려하고 있고, 대형마트나 아파트 등에서도 충전시설을 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PHEV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은 순수전기차(1400만 원)보다 적은 500만 원 수준인 데다, 가격도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 달까지 PHEV 3종이 출시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카셰어링을 통해 선보인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 PHEV'는 지난달 소비자 판매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올해 안에 SUV와 세단 각 1종씩 PHEV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BMW도 올 상반기까지 스포츠카와 스포츠액티비티 차량(SAV), 럭셔리 세단 등 차급에서 고성능 PHEV 라인업을 구축할 방침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지주사 전환 앞둔 현대重 "명분·실리 모두 챙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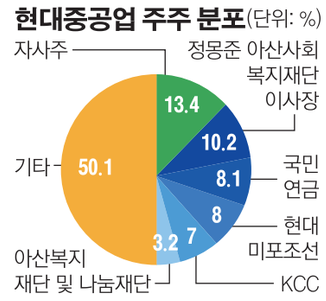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조합 반대가 거세지만, 현대중공업은 명분(업황 악화 대응)과 실리(지배구조 강화)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다. 분사 안의 골자는 수직계열화 됐던 그룹을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투자 등 4개 사업 부분으로 나눠 현대중공업에 집중된 부채를 배분하는 것이다. 조선·플랜트 업황 악화의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담겨 있다.

STX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유수의 조선·해운사들이 유동성 위기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분사 '명분'은 충분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분리되는 회사에 차입금을 나눠 배정하면 현대중공업의 차입금은 3조9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통한 승계 포석이라는 실리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 → 현대삼호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중 핵심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의 대주주 지분율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10.2% △현대미포조선 8% △아산복지재단 및 나눔재단 3.2% 등이다.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면 정 이사장 등 대주주 지분율이 매우 낮다.

현대중공업 주주 분포(단위: %)



현대중공업그룹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현대중공업	조선 · 해양 · 엔진사업 등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전기전자 사업부문
	현대건설기계(가칭)	건설장비 사업부문
	현대로보틱스(가칭)	로봇 · 투자 사업부문

※출처: 현대중공업

조선해운업계 전반 유동성 위기 속 분사로 '부채 배분'…명분 충분 판단

대주주 지배력 강화 '승계포석' 의도 노조 거센 반발 27일 주총 충돌 예고

재계에서는 이번 분사 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지배력은 더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 이사장의 아들인 정기선 전무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도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노조와의 갈등이다. 현대중공업은 연말까지 전 직원 고용보장을 약속하며 직원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노조는 전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주총이 열리는 27일에도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사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분사 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채권은행들의 자구안 이행 압박이 시작된 상황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헬로키티·라인프렌즈, 인기캐릭터 스마트폰 속으로

SKT 27일부터 '헬로키티폰' 판매

KT도 '라인프렌즈 스마트폰' 출시

청소년층 겨냥 캐릭터폰 라인업 강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공백기간을 중저가 캐릭터폰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선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청소년층을 타깃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폰 라인업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오는 27일부터 일본 제조사 올라(OLA)와 함께 3세대(3G) 통신용 피처폰인 '헬로키티폰'을 판매한다. 헬로키티폰은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의 외관 디자인과 UX(사용자 경험)를 적용했다.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74g의 무게와 한 손에 감기는 가로 58㎜, 세로 77㎜의 작은 크기로 설계됐다. 출고가는 18만5900원으로 공시지원금 13만 원을 받으면, 2년 약정 기준 월 할부원금 2329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27일부터'헬로키티폰'을 판매한다. 사진제공 SK텔레콤

KT도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직접 맡아 '라인프렌즈 스마트폰'과 '라인키즈폰2' 2종을 출시했다. 라인프렌즈 스마트폰의 캐릭터 UI(사용자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 기본 UI의 컬러와 이미지를 라인프렌즈 캐릭터로 교체했다. △안드로이드 7.0 OS △전면 800만·후면 500만 화소 카메라 △1600만 컬러의 선명한 5인치 디스플레이 등 실용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라인키즈폰2는 워치형 단말기로 지난해 4월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던 라인키즈폰1의 후속모델이다. 라인프렌즈 스마트폰이 차별화된 UI에 초점을 맞췄다면 라인키즈폰2는 국내 키즈워치폰으로는 최초로 200만 화소 카메라를 내장했다.

라인프렌즈 스마트폰과 라인키즈폰2 출고가는 각각 23만1000원과 26만4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현석 KT 디바이스본부장은 "이번 라인키즈폰2, 라인프렌즈 스마트폰 출시는 캐릭터를 활용한 콜라보 마케팅으로 KT만의 독보적인 라인업을 선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키즈폰 및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캐릭터폰 출시 계획은 없다. 다만, 경쟁사들의 캐릭터폰 판매 상황을 보면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네이버 차기 의장, 변대규 휴맥스 회장 택한 까닭은

벤처1세대 성공신화 상징적 인물

"글로벌 사업 강화 최적 인물 판단"

네이버가 변대규〈사진〉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차기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해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변 회장이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네이버는 이사회를 열고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기타비상무이사)을 신임 등기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대규 회장은 디지털 셋톱박스로 시작해 비디오와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로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벤처 1세대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변대규 회장은 내달 17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타비상무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변 회장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를 통해 경영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변 회장이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벤처유관단체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기업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한 경험을 이사회에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 회장의 벤처 정신과 그에 기반을 둔 통찰력이 네이버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변 의장 내정자는 이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회사에 인사이트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창업 경험과 글로벌 진출, 사외이사에 나섰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변 회장의 네이버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벤처 1세대이며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변 회장이 글로벌 시장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벤처 1세대 중 변 회장이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며 "벤처 1세대 때부터 각각의 회사를 성장시켜 온 이해진 현 의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준호, 사내이사직 내려놓고 'G6 성공' 전념

〈LG전자 MC사업본부장〉

LG이노텍 '서울역빌딩' 새 둥지

LG전자 일부 부서도 자리 옮겨

스마트폰 사업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어깨가 무거워진 조준호〈사진〉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놨다. 조 사장은 프리미엄 모델인 'G6'와 '메가히트'를 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선보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스마트폰 사업 부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 진행되는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이사의 정원이 최대 9인에서 7인으로 조정된다. 원톱 체제 구축에 따라 각자 대표수가 조정되며 조준호 사장이 사내이사직에서 내려온다.

올해로 선임 3년 차가 되는 조준호 사장은 2014년 말 'G3'로 성공 신화를 썼던 박종석 사장의 후임으로 MC사업본부 수장을 맡았다. 조 사장은 부임 이후 2015년 'G4'를 내놨지만 이렇다 할 흥행 성적을 만들지 못했고 'G5'는 흥행에 실패하며 지난해 스마트폰 사업에서만 1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유임되며 다시 기회를 얻은 조 사장은 사내 이사직은 내려놓지만, 'G6'를 통해 사업부의 실적 반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G6 공개를 앞두고 조 사장이 자사주 2000주를 매입한 것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G6는 이달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산 호르디 클럽에서 공개된다. 지난해 G5를 공개한 장소다. 특히 이번 MWC는 조 사장에게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8'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G6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전자는 다음 달 10일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G6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LG 계열사들이 'LG서울역빌딩'으로 내달 입주를 완료한다.

23일 LG이노텍에 따르면 이 회사는 LG서울역빌딩에 이달 입주를 시작해 내달 초 내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 LG이노텍은 지난 2009년 여의도에서 서울역 인근 서울스퀘어로 자리를 옮긴 뒤 8년 만에 다시 이사를 한다.

LG전자의 한국영업본부 등 일부 부서 역시 서울스퀘어에서 LG서울역빌딩으로 둥지를 옮긴다.

LG그룹 관계자는 "LG이노텍과 일부 LG전자 부서들이 LG서울역빌딩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LG그룹 소유 건물에 계열사들이 입주하면서 ㈜LG의 주요 수익원인 임대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LG이노텍과 LG전자 일부 부서가 다른 회사에 내던 건물 임대료를 ㈜LG가 받을 수 있다. 연간 수백 억 원의 안정적인 추가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케미칼, 사상 최대 실적… 'M&A 매직' 통했다

지난해 영업익 7922억…131% 쑥

TDI사업 2년만에 흑자전환 성공

한화종합화학 등 실적개선 효과

한화케미칼이 지난해 인수·합병(M&A)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한화케미칼은 전년보다 131% 증가한 7922억 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달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조2588억 원으로 15% 늘었고, 당기순이익 역시 7709억 원으로 327% 증가했다.

화학부문은 저유가로 인해 원가 안정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됐고, PE(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가성소다,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등 주력 제품이 고르게 시황이 개선돼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TDI는 한화케미칼 품에 안긴 후 2년 만에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한화케미칼은 2014년 9월 KPX화인케미칼을 인수하면서 TDI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KPX화인케미칼은 TDI 업황이 나빠 4년째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TDI 가격은 2015년 연말 톤당 1425달러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95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이 3~4분기에 TDI에서만 각각 2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천NCC와 한화종합화학, 한화토탈의 실적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케미칼은 한화종합화학 지분 36.05%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종합화학은 한화토탈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지난해 지분법 이익은 약 4233억 원이다. 2014년 삼성그룹과의 빅딜로 인수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은 지난해 주요 제품 스프레드 확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한화토탈은 올해 약 1조4000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수익형 부동산도 "역시 서울"

공실률,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
중대형 상가 7.7% 소규모 2.64%
저금리 기조에 투자금 지속 유입
단지 내 상가·소형 오피스텔 주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서울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실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상업용 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시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각각 7.7%와 2.64%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10.66%와 5.21%로, 서울이 가장 낮았다.

이 기간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전라북도로, 19.81%에 달했다. 소규모 상가는 대전광역시의 공실률이 12.11%로 가장 높았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비율 차이가 중대형은 2.5배(7.7%→19.81%), 소규모는 6배(2.64%→12.11%)에 달한다. 즉 전라북도와 대전광역시의 공실률이 서울보다 2.5~6배 높은 셈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투자 금액에 있어서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공실률인 만큼 서울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곳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주택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수요 탓에 서울에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부지 확보난으로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지면서 단지 내 상가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큰 규모보다는 단지 규모가 작게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상업시설이 지난 17일 홍보관을 열고 분양 중이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단지 내 상가로 재개발 아파트인 만큼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87개 점포가 공급된다.

광진구에서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단지 내 상업시설이 공급된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19개 점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천구에서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오피스텔의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 960'이 분양된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라테라스 청담'이 3월 분양에 나선다. 청담동에서 드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역세권 입지다. 지상 9층 규모로 88가구만 공급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공급 예정 서울 주요 수익형 부동산 ※ 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위치	상가명	시공사
상가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크로타워 스퀘어 상업시설	대림산업
	광진구 구의동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상업시설	삼성물산
	금천구 독산동	마르쉐도르 960	롯데건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강남구 청담동	라테라스 청담	동양 건설부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대우건설
	서초구 서초동	어반하이서초	㈜후성그룹
	송파구 방이동	잠실 L. 퍼스트	대저건설
	동대문구 전농동	다스 하우스(DAS-HAUS)	서원건설



건설사, 아파트 분양 일정 '눈치싸움'

이달 2만650가구 공급… 예상치의 절반
4~5월은 대선·연휴에 관심도 낮아질 듯
3월 48%↑ 4만7133가구 '봄 분양대전'

건설업계가 분양일정을 두고 눈치싸움에 들어가면서, 2월 공급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공급일을 내달로 줄줄이 미루고 있다. 분양 성수기인 4, 5월이 대통령 선거 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휴까지 끼어 있어 3월에 이번 봄 분양의 가장 큰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당초 예정물량(2만650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8927가구만 분양된다. 물량의 상당 부분이 3월로 미뤄지면서 내달 분양시장에 나오는 아파트는 4만7133가구에 달하게 됐다. 당초 3월 예정 물량(3만1815가구)보다 48% 늘었다.

2월 분양물량이 이처럼 위축된 데는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높아진 데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한 7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 원(약 3만9000가구)에 달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곳에는 95% 이상 계약률을 보인 사업장 26곳(4조8000억 원, 2만1000가구),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 원, 9000가구)도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연 3.2~3.7%를 보였던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현재 3.4~4%로 오른 상태다. 일부 은행 금리가 4%대를 넘어서 5%대 대출이 일반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 정책에 중도금 인상 여파까지 겹쳐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3월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5월 초엔 이른바 '벚꽃대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데다, 연휴까지 겹쳐 있어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는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일정을 3~4개월 이상 미루는 것도 어렵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며 "공급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것도 쉽지 않아 3월과 6월께 분양시장이 그나마 크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주목! 이곳 **GS건설 '자이더빌리지'**

단독주택 단점 빼고 아파트 장점 더하고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마산동 525가구
전 가구 개별정원·테라스·다락방 제공
아파트처럼 보안·스마트시스템 서비스

시니어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단독주택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젊은 층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획일화된 모양과 층간 소음 등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축되게 하는 아파트 문화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대형건설사로서 처음으로 24일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 마산동 일원에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인 자이더빌리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자이더빌리지는 GS건설이 LH로부터 용지를 공급받는 최초의 블록형 단독주택 리츠 사업으로,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총 5개 단지, 525가구 규모다.

단지가 조성되는 부지는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차로 30여 분 달리자 모습을 드러냈다. GS건설은 자이더빌리지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단독주택의 단점은 개선하고, 아파트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전 가구에 개별정원과 테라스가 제공돼 미니카페, 화원, 바비큐장, 파티장 등 각각의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다. 가장 상층에 제공되는 다락방은 아이들 놀이공간 또는 세대원의 취향에 맞는 취미공간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타입에 따라 광폭 넓이의 개별 주차장, 넓은 거실폭, 높은 천장고 등이 제공되는 만큼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는 기존 자이 브랜드 아파트에서 제공되던 보안과 스마트시스템 서비스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던 단독주택의 단점을 개선한 부분이다.

청약은 28일 진행하며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1인당 각 단지별로 1건씩, 최대 5건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접수 후 3월 3일 견본주택에서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을 진행한다. 전 가구 계약금(1차) 5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라는 조건으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줄였다. 발코니 역시 무상 제공된다.

자이더빌리지의 입주 예정은 2018년 6월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1-4(한강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대학생 특화단지 '가좌 행복주택' 본격 집들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입주민과 인근 마포구·서대문구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를 24일 개최한다.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인접해 있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등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만7000명이 넘게 신청해 평균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되면서 49명(예비신혼부부 18명, 취업준비생 31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로,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했다.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특화형 편의시설을 갖췄다.

대학생·사회초년생 가구에는 냉장고·가스쿡탑·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고 와이파이존·스터디룸·무인택배함·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이번에 입주하는 가좌지구 입주민은 청년층이 80%(290명)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대학생이 77%(222명)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 15%(43명), 신혼부부 8%(25명)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단순히 물량 공급 측면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학생 특화단지는 연말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준법감시확인필, 커뮤니케이션팀 제2016-18호(2016.3.28)

보험을 만난 사람들



"갑자기 생긴 남편의 빈자리에도
사랑스러운 쌍둥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걱정 없이
큰 병 걸린 어머니를 끝까지
뒷바라지할 수 있었어요"



"은퇴한 남편과 함께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하게 되면서
단절된 경력을 되찾고, 외동딸의 꿈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었어요"

걱정보다 **기대**가
불안보다 **안심**이 커지는 세상
보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삼성생명 SAMSUNG

글로벌시장 움직이는 새로운 입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시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언론사와의 잇단 인터뷰로 시장 신고식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처음으로 TV에 출연한 것이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다른 언론매체와도 별도로 인터뷰를 가졌다.

므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8월 미국 의회 휴회 전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매우 중요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이를 위해 상·하원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의회 의견이 합쳐진 세제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해왔다. 여전히 트럼프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므누신 장관이 세부 일정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언론사 잇단 인터뷰… 세제 개편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 강조
감세 중산층 집중… '감세 발언' 힘입어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국경세엔 신중… 中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기조와 엇박자

공화당 하원이 추진하는 핵심 세법인 국경조정세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이 계획은 흥미로운 측면도 있지만 일부 우려되는 점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은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제조업체들은 지지하나 수입 비중이 큰 소매업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그는 세제 개혁을 통한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의회예산국(CBO)과는 다른 기준으로 경제성장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세제를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3% 이상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다. 내년 말에는 미국이 좀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견해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가 강달러를 비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그는 일련의 인터뷰에서 환율조작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강달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다른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안보 불안을 덜어줬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독일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거듭 약속해 유럽 국가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인 공화당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도 이런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므누신의 감세 관련 발언에 힘입어 10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가운데) 마크 필즈 포드 CEO 등 제조업계 최고경영자(CEO) 24인을 백악관에 초청해 회담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일자리 창출" 또 당근

제조업 CEO 24명 초청
세금 정책·규제 완화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모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찍 대신 당근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제조업 CEO 24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재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미국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기 위한 세금 정책과 규제 개혁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와 세제 개혁, 무역 정책 개혁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트와 포드자동차의 마크 필즈, 머크의 케네스 프레이저 등 24개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에서 7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 3분의 1이 줄었다"면서 무역 정책 개혁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강조했다. 그간 미국 제조업들은 낮은 임금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때는 물론 당선된 직후 기업들에 고용 창출을 압박해왔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자 포드 등 상당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는 엄포가 아닌 세제와 규제 개혁 등을 약속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독려했다. 다만 세제와 무역 등에 대한 개혁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CEO들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을 강조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멜트 GE CEO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혁은 고용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 머크 CEO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관심을 보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앤드류 리버리스 다우케미컬 CEO는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친 기업적인 정부일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 100년만기 초장기 국채 발행 강행하나

정부 차입 비용 상승하자 검토
세계 국채시장 전환점 맞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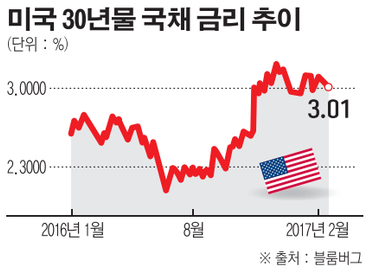
미국이 기어코 50~100년 만기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강행할 전망이다. 미국 국채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초장기 국채 발행이 현실화한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초장기 국채와 관련해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재무부 내부 직원들에게 초장기 국채 발행 검토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시장과 투자자 등 다른 주체들과 접촉해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주 낮은 프리미엄에 50년이나 100년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 발행 전략은 역사적으로 성과를 보였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실제 발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글로벌 국채시장에서 50~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는 이미 유통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7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고, 멕시코와 벨기에, 아일랜드에는 100년 만기 채권이 있다. 그러나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국채라는 점에서 미국의 초장기 국채 발행은 글로벌 국채 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중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30년물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30년물 이상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발행을 검토하는 건 인프라 투자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 정부의 차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올랐는데, 이날도 30년물 국채 금리는 2.5%에서 3.01%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낮은 금리를 장기 국채 발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채 발행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제프리스의 탐 시먼스 자금시장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전 세계적으로 초장기채는 정기적으로 발행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코발트 사재기 나선 글로벌 헤지펀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연료
車 업체 코발트 확보 비상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코발트를 사재기하면서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전기차용 배터리에 핵심 연료로 쓰이는 코발트를 확보하는 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기차 업계 대표주자 테슬라는 보급형 새 전기차 '모델3'를 7월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기가팩토리도 지난달 미국 네바다 주에서 가동에 들어갔다. 테슬라는 2018년까지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인력도 6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2900명이 일하고 있다.

테슬라를 포함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코발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사재기에 나섰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에 따르면 스위스 팔라인베스트먼트와 중국의 상하이카오스 등을 포함한 6개 헤지펀드는 최근 코발드 6000t을 매입했다. 약 2억8000만 달러(약 3171억 원)어치다. 이는 작년 글로벌 코발트 생산량의 17%에 해당한다.

자동차 제조업 기업들은 코발트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컨설팅업체 CRU에 따르면 올해 코발트 수요는 이미 900t을 초과했다. CRU의 에드워스 스펜서 애널리스트는 "헤지펀드의 사재기에 코발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코발트 수요는 매해 20%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장이 41% 성장한 결과다.



전기차 산업은 연간 코발트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터리의 안정성과 용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거의 독점으로 채굴한다. 코발트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 50% 이상 오른 파운드당 21달러를 찍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코발트 가격은 2015년에 파운드당 10달러로까지 떨어졌다. 2007년에는 파운드당 약 50달러에 불과했다.

코발트 공급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광산업체 글렌코어의 이반 글로센버그 대변인은 코발트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정치발언 나오면 TV 꺼버릴테야"… 아카데미 시상식 보이콧 위기



26일(현지시간) 개최될 미국 영화계 최대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행사가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극장 앞에서 23일 한 남성이 최고의 영예인 오스카상을 대형화한 동상을 손보고 있다. 올해로 89회째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의 66%가 "이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TV를 꺼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트럼프 성토장'이었던 데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평생 공로상을 받은 메릴 스트립을 비롯해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잇달아 비난했다.

LA/신화연합뉴스

"올림픽 치르다 거덜난다"… 부다페스트·스톡홀름 등 유치 포기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발을 빼면서 개최지 후보는 최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프랑스 파리로 압축됐다.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여러 나라가 올림픽 개최를 주저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헝가리는 이날 막대한 예산에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유치 신청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캠페인에 헝가리 국민 26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필요한 13만8000명의 2배 이상 규모다. 헝가리 지역 언론은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두려워한다"고 보도했다.

예산 문제로 올림픽 유치를 포기한 도시는 부다페스트뿐만이 아니다. 최근 후보지로 올랐다가 속속 발을 빼는 나라들이 생겨났는데 이유는 한결같이 예산 때문이었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도 마찬가지였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노르웨이의 오슬로, 폴란드의 크라코우가 줄줄이 포기, 최종 개최지는 중국의 베이징으로 선정됐다.

그간 올림픽 유치를 원했던 각국 지도자들은 경기 티켓 판매, 건설 일자리 증가, 관광 수입 증가로 비용이 충분히 만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올림픽 개최로 거둬들이는 수익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한다. 경기장 및 인프라 투자에 돈이 많이 들고 보안 비용만 수십억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작년 옥스퍼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올림픽 개최지에서 예외 없이 비용 초과 문제가 있었다. 각국이 제시하는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에 불과하다. 일례로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브라질은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16억 달러(약 1조8184억 원) 초과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시각장애인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삼성의 ‘착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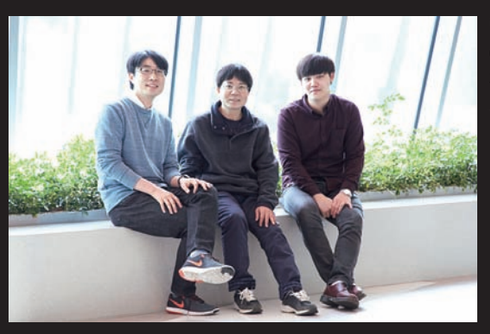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기어뷰앤드리드가 개발한 ‘릴루미노’의 적용 전후의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그림 비교. 앱 적용 전에는 그림이 뿌옇게 보이나 앱 적용 후에는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림을 볼 수 있다.



릴루미노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적용해 눈 앞에 사진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



기어뷰앤드리드는 실제 안경처럼 이질감 없이 릴루미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릴루미노 개발의 주역인 기어뷰앤드리드팀. 왼쪽부터 김용남 팀원, 조정훈 CL, 김승찬 팀원.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내벤처팀 ‘기어뷰앤드리드’
시각장애인 도우미 앱 ‘릴루미노’ 개발

VR기기로 구동, 각막혼탁 등 증상 개선
눈 앞의 사물, 보다 쉽게 구분 가능해져

가격 10만원 안팎… 보조기기보다 저렴
27일 ‘MWC 2017’에 참가 글로벌 첫선

혁신은 기술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히 ‘돈이 안 되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목적을 가진 기업들에는 혁신이 기반이 된 기술은 수익성을 높이기에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삼성은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착한 기술’에 주목했다.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 많은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삼성은 착한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계층의 경제, 사회 여건에 맞게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적정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랩’에서 선발된 ‘기어뷰앤드리드(Gear View&Read)’팀은 ‘시각장애인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착한 기술을 선보였다. ‘빛을 되돌려준다’는 뜻의 라틴어인 ‘릴루미노’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은 가상현실(VR) 기기에서 구동돼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기어뷰앤드리드가 착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주된 여가 활동이 ‘TV 시청’이라는 한 조사 결과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이 TV를 즐겨 본다는 사실에 시각장애에 대해 조사해보니 명암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막 혼탁 △유리체 혼탁 △굴절 장애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릴루미노는 기존 시각 보조기기보다 다양한 시각장애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 각막 혼탁 증세가 있는 사람이 릴루미노 앱과 연동한 VR 기기를 착용하면 흐릿했던 사물의 윤곽이 눈에 띄게 뚜렷해져 눈 앞 사물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굴절 장애·고도근시 교정 효과도 있다. 릴루미노는 색 대비와 색 반전, 확대 기능을 구현해 망막이 사물의 초점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착한 기술은 가격도 합리적이다. 기존 시각 보조기기의 대당 가격은 1000만 원 선이지만, VR 기기와 릴루미노 앱의 가격은 10만 원 안팎이다.

기어뷰앤드리드는 릴루미노의 시각 개선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실제 안경처럼 이질감 없이 릴루미노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조정훈 기어뷰앤드리드 크리에이티브 리더(CL)는 “첫 번째 프로토 타입을 제작한 후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그곳 사람들에게 써보게 한 후 사용 후기를 들었다”며 “우리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팀원들을 알아보고 미소 지어 굉장히 기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기어뷰앤드리드는 오는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 참가해 전 세계에 착한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 C랩은 이외에도 눈 깜박임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안구마우스 ‘아이캔(eyeCan)’, 발화 장애인의 목소리가 돼 주는 ‘스마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등의 착한 기술을 내놓았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씨컬러스’ 론칭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씨컬러스를 체험하고 있다.

전세계 3억 색각이상자들에 ‘총천연색 선물’

헝가리 기업과 손잡고 색각이상자용 TV보정 앱 ‘씨컬러스’ 개발

삼성전자가 전 세계 3억 명의 색각이상자에게 ‘총천연색’을 선물하고 있다. “세상 모든 이가 아름다운 색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착한 솔루션 ‘씨컬러스’를 통해 색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의 색을 최대한 가깝게 구현해주고 있는 것.

‘삼성전자의 기술과 혁신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이 다양한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브랜드 캠페인 ‘론칭피플’이 단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솔루션으로 구현된 것이다.

개발진은 헝가리 기업 ‘컬러라이트(Colorlite)’와 손잡고 색각이상자가 본인의 증세를 정확히 진단한 후, 각자의 눈에 최적화된 TV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씨컬러스를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90% 이상의 정확도로 사용자의 적·녹·청색 인지 부족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성 TV는 자체 보정 단계를 거쳐 사용자 눈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달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 씨컬러스 앱 론칭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에서 열린 출시 기념 행사에서는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벽면을 형형색색으로 장식하면서 색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색각이상자도 참석해 TV 화면 속 색상이 자신의 눈에 맞춰 보정되는 체험을 하며 “컬러풀(Colorful)!”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씨컬러스는 고안 취지와 아이디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칸 라이언즈 국제광고제에서 2개 부문 동상을 받기도 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씨컬러스처럼 전 세계 사람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HAURI

"해외송금 수수료 더 싸게…금융도 사람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서일석 대표

"집에서 앱으로 인증 거치면 편리하게 송금 가능 수수료 비싼 은행 독점 깨고 2% 내외로 서비스"

"금융은 제조업보다 IT와의 접목이 더딘 분야다. 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시장에 진입해 더 싸고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사람 중심의 금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다."

23일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만난 서일석 모인 대표(사진·34)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100조 원이 넘는 아시아의 개인 해외 송금 시장을 대표하는 송금·결제 회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MOIN)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며칠씩 기다리지 않아도 모인의 웹이나 앱을 통해 몇 가지 인증만 거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해외송금 시장은 전통적으로 은행들이 99% 독점해온 시장이다. 서 대표는 "은행들의 해외송금 구조는 몇 십 년된 방식이라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수수료만 해도 다섯 종류가 붙는데 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5~8%가 수수료로 제해져 100만 원을 보내면 92만~95만 원 정도만을 현지 화폐로 수령하게 된다. 반면 모인의 해외송금 서비스 수수료는 2% 내외에 불과하다.

사업 과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 대표는 "금융 서비스이다 보니 법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며 "자문 로펌만 두 곳이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은행만을 외국환을 다루는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 사업자들은 움직임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모인이 현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국내서 현재 비트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다. 논블록체인(non-blockchain)은 모두 환치기로 규정돼 불법"이라고 그는 말한다. 반면 영국에 기반을 둔 '트랜스퍼와이즈'와 같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기'로 규정되는 방식을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해왔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는 핀테크금융과 같은 비금융 사업자도 외화이체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그는 "아시아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는 현재 개화기이고 앞으로 굉장히 확장될 것"이라며 "국내 개인의 해외송금 규모만 연간 20조 원이다"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올해는 1분기 동남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해 유럽 국가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을 통해 이용자 수수료를 더 낮출 계획"이라며 "국내 시장에 머물 생각은 없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김장겸 본부장 MBC 새 사장에



MBC 새 사장에 김장겸(사진·57) MBC 보도본부장이 선임됐다.

MBC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에 김 보도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청와대 포함 여권 추천 인사가 6명, 야권 추천 인사가 3명이다. 이날 야당 추천 이사 3명은 이번 사장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사들의 '표결 보이콧'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신임 사장은 선임 후 "MBC를 흔들려는 세력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고려대 농경제학과, 고려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영국 카디프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87년 MBC에 입사해 런던 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네팔 어린이들에게 9번째 학교 선물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엄홍길 휴먼재단과 학교 건립
해발 1900m 험준한 마칼루
교육혜택 적은 지역 개소 의미



하나금융그룹은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마칼루에 '하나금융그룹 & 엄홍길 휴먼스쿨'을 건립하고 23일(현지시간) 준공식을 가졌다.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준공 기념행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 및 마을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네팔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3일(현지시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마칼루에 건립한 '하나금융그룹 & 엄홍길 휴먼스쿨' 준공식에서 이 같은 희망을 밝혔다.

이날 문을 연 '마칼루 하나금융그룹 & 엄홍길 휴먼스쿨'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좌 등정을 기념해 엄홍길 휴먼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온 '네팔 오지마을 16개 학교 건립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아홉 번째 휴먼스쿨이다.

하나금융은 학교 설립을 통해 네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이를 주요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정·후원해 왔으며 앞서 2013년 12월 엄홍길 재단과 학교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휴먼스쿨은 해발 1900m의 험준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곳에 개소한 까닭에 의미가 남다르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학교가 위치한 마칼루까지는 툰민타르 공항으로 국내선에 이은 오프로드 차량 5시간 이동 후 도보로 7시간 이상이 걸려 행사 참석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의 시일이 소요됐다.

20일부터 24일까지 준공식 행사 등 모든 일정을 끝까지 함께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학교 관계자, 마을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준공식 전날인 22일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들과 야영 숙박도 강행했다.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이 같은 행보는 올해 65세인 김 회장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 사업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마칼루 휴먼스쿨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네팔 어린이들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장차 네팔을 이끌어 갈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인사

◆**교육부** 〈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성철 △〃 김화중 〈장학관〉 △대변인실 박중재 △학교정책실 박종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최성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주식 △〃 안희숙 △전라남도교육청 정용호 〈교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승겸 △〃 나현균 △〃 이은정 △한국선진학교 박무준 〈원감〉 △경기도교육청 장윤정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평택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구자승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신종근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변해근 △통영지청 사무과장 기우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주시경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성태곤 △광주세관장 양승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황정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박종배 △시스템종양생물학과장 이호

◆**한국학중앙연구원** △비상임이사 이기수 △비상임감사 한찬희

◆**쌍용자동차** 〈승진〉 ◇부사장 △인력·품질관리부문장 겸 인력·관리본부장 하광용 △국내영업본부장 송영한 ◇상무 △홍보담당 정무영 △해외서비스담당 이종대 ◇상무보 △인사담당 김재선 △생관·물류담당 조진규 △서울강남지역본부장 채규병 △엔진구동개발담당 안기환 △차량설계담당 이원상

◆**롯데그룹** ◇BU장 및 대표이사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월드 대표이사 부사장 박동기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부사장 정승인 △롯데루스 대표이사 부사장 양석 △이비카드 대표이사 전무 이근재 △엔씨에프 대표이사 상무 설풍진 △롯데제이티비 전무 안규동 〈보임〉 △롯데건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하석주

◆**호텔롯데** 〈승진〉 △전무 장선윤 △상무 박재홍 서정곤 임성복 △상무보A 송중구 남재섭 △상무보B 김송기 이효섭 김상민

◆**롯데면세점** 〈승진〉 △상무 이종환 박창영 △상무보A 이승국 △상무보B 이동대 박성훈

◆**롯데월드** 〈승진〉 △상무보A 권오상 김승욱 △상무보B 고정락

◆**부산롯데호텔** 〈승진〉 △상무보B 김부현

◆**롯데스카이힐C.C** 〈승진〉 △상무보A 김태홍

◆**롯데글로벌로지스** 〈승진 〉 △상무 손현주 안대준 △상무보B 정동욱

◆**롯데건설** 〈승진〉 △전무 김금용 △상무 허진욱 안재홍 박영천 김종식 김정민 임영균 김병근 최용석 신치호 김범수 △상무보A 박순전 변휘석 김지선 선우환호 김진 최광우 전구호 △상무보B 전삼종 김상민 정재만 고용주 김태완 정세진 공성태 이병구 장지영 강우선 김충구

◆**코리아세븐** 〈승진〉 △상무보A 오재용 △상무보B 이현세 김영혁

◆**롯데알미늄** 〈승진〉 △전무 엄임용 김정원 △상무 이경돈 △상무보A 이승련 △상무보B 육명선

◆**롯데리아** 〈승진〉 △상무 이호우 △상무보B 김치만 김상진 이민규

◆**롯데렌탈** 〈승진〉 △상무 김 경우 △상무보A 이승연 김좌일 △상무보B 박주형 이강산

◆**대흥기획** 〈승진〉 △상무 추성호 △상무보A 조운행 이상진 △상무보B 권오승 김상진 안승준 강지은

◆**롯데첨단소재** 〈승진〉 △상무 김연섭 김홍규 △상무보A 채상윤 김정만 △상무보B 강수경 신현범 임종철 한명진 김성호

◆**롯데닷컴** 〈승진〉 △상무보A 임성묵 △상무보B 오정훈 한백영

◆**롯데네슬레코리아** 〈승진〉 △상무 이선장

◆**롯데제이티비** 〈승진〉 △상무보A 박재영

◆**논객닷컴** △대표 겸 편집인 권혁찬

◆**대구사이버대** △휴먼케어대학원장 김한양 △기획조정실장 김영걸 △교무처장 겸 미래교육연구소장 송인욱 △학생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옥분 △이러닝지원처장 겸 전자도서관장 이창희 △원격교육연수원장 조정연 △특수교육학과장 우정한 △미술치료학과장 이흥표 △행동치료학과장 조정연 △상담심리학과장 전종국 △사회복지학과장 원서진 △재활상담학과장 박경순 △복지행정학과장 백윤철 △행정학과장 정성범 △전자정보통신공학과장 김춘희 △한국어다문화학과장 윤은경 △휴먼케어대학원 미술상담학과장 전영숙

부음

▲**변증남**(카이스트 명예교수)씨 별세, 영재(울산과학기술원 대외협력처장)씨 부친상, 김태윤(삼성전자 수석연구원)씨 장인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3151

▲**강병길**(목원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씨 모친상 = 23일, 유성한가족병원, 발인 25일, 042-611-9700

▲**이영민**(프로축구 안산 그리너스 수석코치)씨 모친상 = 23일, 김포 뉴고려병원, 발인 25일, 031-998-4415

▲**김의창**(동국대 교수)·의근(사업)·유창(동의대 교수)·성창(아시호 대표)·유경(동산정보고 교사)씨 모친상, 박도근(쓰리엠네트웍스 대표)씨 장모상 = 2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2-2227-7587

한국여성 인물사전

〈60〉 박현숙

일제강점기 비밀결사대 조직 광복후엔 과도입법의원 활동



박현숙(朴賢淑, 1896~1981)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으로 아버지는 정규(貞圭), 어머니는 최광명(崔光明)이며, 남편은 독립운동가 김성업이다. 1913년 평양의 숭의여학교(崇義女學校)를 졸업한 뒤 전주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교사로 있으면서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며 항일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1915년 항일 비밀결사인 송죽결사대를 조직하였고, 1919년 3·1운동 때에는 평양에서 여성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평양형무소에서 복역 중 신병으로 출옥하자 다시 비밀결사인 대한애국부인회의 결성에 참가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 경찰에 잡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22년 가출옥한 뒤에도 계속 여성운동을 주도했다. 1927년 좌우 합작의 여성단체 근우회(槿友會)가 결성되자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1945년 8월 18일 창당한 대한여자국민당(당수 임영신, 부당수 김선 이은혜)의 총무부장을 맡아 활동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은 강령으로 '여성의 힘을 모아 남자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없는 민주사회의 건설, 근로자와 여성생활을 향상시키는 건전한 민주경제의 실현, 민족문화 발전을 통한 세계평화·인류번영에의 기여' 등을 채택했다.

1946년 11월 15일에는 독촉(獨促)애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여성단체를 총망라한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현숙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여성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여성의원 4명 중 1명이 되었다. 입법의원 개원식 첫날 인터뷰 기사에서 박현숙은 "봉건적 사상의 잔재가 아직 농후한 현재 여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자의 권리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문화적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지 이 기회에 인식시키고 싶습니다.(경향신문, 1946.12.15.)"라고 말해 입법의원 참여 목적이 여권 향상에 있음을 밝혔다. 과도입법의원에서는 헌법기초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8월 8일 '공창제도 폐지령'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하자 박현숙은 박순천과 함께 감찰위원에 임명되었다. 1952년에는 무임소장관, 1953년 자유당 소속 민의원, 1963년 공화당 전국구의원이 되었다. 사회단체 활동으로는 1953년 MRA(도덕재무장운동) 대회 한국대표, 1953년 대한부인회 최고위원, 3·1 여성동지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에 숭의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교육사업에도 종사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을 받았다.

정현주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정치적 혼란, 국제 무역에 악영향"

김인호 무역협회장 "위기를 기회로"



김인호〈사진〉 무역협회 회장이 정치적 혼란이 우리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협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고 브렉시트 가결, 미국 대선, 한진해운 사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무역업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위기의 순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았을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해 왔다"며 "무역협회가 한국 무역의 재도약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신통상 질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서비스·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 수출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무역인력 양성과 수출 저변 확대 등의 6대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박정호 SKT 사장 신입 구성원과 대화

"패기 있게 도전해 뉴 ICT 주역 되길"

"패기를 바탕으로 한 끈질긴 도전으로 뉴 ICT의 주역이 돼주길 바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3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열린 'CEO-신입 구성원과의 대화' 시간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박 사장은 "패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이 뉴 ICT 생태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며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 열정,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일의 목적과 본질을 탐구하는 열정임을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가짐과 열정"이라며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했다.

이날 박 사장과 신입 구성원들은 신입사원으로서의 마음가짐, 난관 극복 방법,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고자 SK텔레콤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CEO-신입 구성원과의 대화는 CEO가 직접 신입 구성원과 만나 SK텔레콤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23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CEO-신입 구성원과의 대화' 시간을 열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김범근 기자 nova@

정부 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LH가 희망하는 행복의 중심엔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의 주택을 지어가는 LH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빛과 어둠을 보다

며칠 전 일본의 나오시마(直島) 섬에 갔다. 오직 하나,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지하미술관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4시 20분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타는 요란을 떨면서도 그 미술관을 본다는 기대감으로 견디며 갔다.

바다에 인접한 세토우치(瀨戶內)의 자연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만든,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지추미술관(地中美術館)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 버려야만 했던 세토우치의 자연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자연으로 불러도 좋을 듯한 미술관을 마음으로 그리며 비행기를 탔던 것이다.

우리나라 혜화동에도 있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나는 좋아한다. 그 건축물에 들어가면 왠지 인간이 압도되는 듯하다가도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다가 높고 긴 콘크리트 벽에 서면 무엇인가 '넘어서려는' 의지가 성큼 일어서는 것이 나는 좋았다. 그의 주요 소재는 콘크리트와 철 유리 나무인데 딱딱함과 유연함을 함께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미술관으로 숨을 죽이며 들어갔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손끝이 가늘게 떨려 왔다. 역시 묵직한 침묵으로 압도되는 콘크리트 벽을 옆으로 두고 걸으면 클로드 모네의 그림이 나오고, 월트 드 마리아의 작품이 있고, 제임스 터렐의 빛을 보게 된다.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모네의 대작 '수련'도 있다. 장소에 맞춘 터렐의 작품은 온몸을 서늘하게 멈추게 하면서 신비하며 마리아의 공간 배치는 잠시 오래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낸다. 보는 순간 자아의 긴 줄을 잡아당길 듯한 묘한 감정을 들추어 주는 긴장을 맛보게 하는 작품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고팠다. 아니 이게 다야? 나는 마음으로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엽서 몇 장을 사면서도 왠지 너무 작은 미술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걸 보려고 새벽부터 그 야단법석을 했었나? 그리고 다음에 미술관 바로 옆 안도 다다오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조 건축물 안에 설치된 터널의 빛과 어둠을 경험하면서도 '이게 뭐야?' 하고 나는 혼자 궁시렁거렸다.

그 건물은 입구부터 이미 너무나 어두워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어둠 속으로 들어서게 돼 있다. 모두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이다. 정말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흐릿한 두 개의 작은 조명이 아슴하게 나타나고 드디어 저 벽 쪽에서 네모의 아슴아슴한 빛이 느껴진다. 그렇다. 그것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빛이다. 보는 체험이 끝나고 그 네모를 만지게 하는데 바로 그 네모는 뚫려 있는 벽이었다. 밖이었던 것이다.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어둠과 빛의 집을 나오면 주변엔 설치미술가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의 노란 호박과 붉은 호박이 있다.

그렇다. 그 해변은 모두 미술관이었던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모든 사람과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이, 식당과 카페까지 모두 미술관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놀라움으로 우뚝 섰다. 지추미술관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배가 차오르고 배가 불러왔다. 그득하고 꽉 차 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가 부르다.

제자 하나가 문자를 보내왔다. "선생님 아프지 마시고 많이 웃으세요." 나는 지금 아픔과 웃음의 모순을 빛과 어둠으로 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존이다. 삶의 뜨거운 공존 말이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갈피 잡지 못하는 외환시장

금년 들어 외환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 시그널에 따라 장기 금리가 상승, 미 달러화의 급등세를 불러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은 180도 돌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직접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환율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면서부터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때 전례를 깨고 달러가 너무 강해서 "미국민들을 죽이고 있다(It's killing us)"는 표현을 하였다. 그 직후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연출,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1260에서 1247까지 수직 하락하였다.

1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조직 NTC의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w) 의장 또한 독일을 겨냥해, '극도로 저평가된(grossly undevalued)' 유로화를 이용하여 미국을 '착취(exploit)'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직후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환율은 0.93에서 0.92까지 바로 빠지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나바로 의장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외환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모두 빠짐없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매 시각 언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때문에 트위터 주가가 급등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금리를 조절할 때 쓰는 용어인 소위 '공개시장 조작(open-market operation)'에 빗대어,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open-mouth oper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사실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현재 중국 위안화 환율은 기묘한 균형 수준인 달러당 6.87~6.88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2월 초 발표를 통해 1월 말 외환보유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대를 깨고 2조98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깨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표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간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외환통제를 가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와중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국의 담보제도 중에는 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내보외대(內保外貸)'라고 부른다. 해외에서 빌린 돈은 해외에서 M&A 등의 자금으로 사용해야지 중국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중국당국은 1월 26일 이를 전면 허용, 해외에서 빌린 자금도 제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했다. 즉 개인당 해외 송금을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기업들의 해외 M&A는 금지하는 등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해외에서의 자본 유입 문호는 활짝 열어 장려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달러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중국의 위안화는 폭락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위안화 환율은 기묘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하며,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내부 환경 측면에서는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 압력이 가해지는 반면, 대외환경인 미 행정부에 의해서는 평가절상 압력이 맞서고 있어 국제외환시장에서는 현재 기묘한 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컷

힘겹다



추운 날, 이걸 묶어야만 난방이라도 겨우 할 수 있다. 매 순간 열심히 살아왔건만 이제 우리를 찾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 세상은 백세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인생, 참 힘겹다!

이동근 기자 foto@

온라인 와글와글



빈 병 소비자 반환율 24%→38% 증가 "빈 병이 돈 되네"

올해 초 소주와 맥주의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 직접 빈 병을 반납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일부터 19일까지 소매점에서의 소비자 빈 병 반환비율은 38%로, 보증금 인상 전(24%)보다 높아졌다. 올해 초 소주 빈 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일부 소매점의 소비자의 빈 병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3월 초까지 전국 소매점 등 5000곳을 조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네티즌은 "빈 병이 이젠 돈이 되네", "고깃집에서 술 마시고 빈 병 놓고 가면 술값 좀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동네 구멍가게들은 골치 아플 듯. 빈 병 쌓아놓을 장소도 마련해야 할 텐데", "빈 병 보증금 올랐다고 술값도 덩달아 올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영화 '재심'이 박스오피스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재심'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살인누명을 쓰고 10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했죠. 비슷한 사례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등도 재판부의 오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심으로 인해 망가진 인생, 이들의 상처와 낙인에 대한 배상은 과연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nG6KyL



이슈&인물

"어느 나라 차가 아니라, 어떤 차인지가 중요한 시대"

中 SUV '켄보 600' 돌풍

이강수

중한자동차 대표

중국車 저품질? 천만의 말씀
직접 타보면 알게 될 것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상황
부족한 건 '브랜드 명성'일 뿐

싸구려 차? 거품 뺐기 때문
시장 규모 커 단가 낮은 것
다른 車업체도 한국진출 타진
시장 커지니 환영할 일이죠

대우車서 경차 프로젝트 담당

이강수(57) 중한자동차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과·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6년 동안 루마니아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 뒤, 영업본부장과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당시 그는 라보, 다마스, 티코 등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맡아 대리점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대우자동차에서 코라오(KOLAO)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자동차 부문 총괄 사장을 맡아 △신차 개발 △생산 △품질 △판매 △AS 부문을 담당했다.

"사장님이 오시고 통장 잔액이 쌓이고 있어요." 중한자동차의 한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은근하게 꺼냈다.

인터뷰를 진행한 17일, 인천 남구에 위치한 중한자동차 본사는 회사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듯 활기가 넘쳤다. 중한자동차는 국내 처음으로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다. '켄보 600'으로 명명된 중국산 SUV는 출시 초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초도 물량 120대는 한 달도 채 안 되어 완판됐고, 계약자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켄보 600 돌풍의 중심에는 이강수 중한자동차 대표가 있다. 대우자동차에서 '다마스', '라보', '티코'를 탄생시키는 데 한 축을 담당했던 그는,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켄보 600의 론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새로운 수입차는 물론 자동차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그에게 중한자동차와 중국산 자동차의 미래를 들어봤다.



인천 남구 중한자동차 본사에 전시된 '켄보 600'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강수 중한자동차 대표. 이 대표는 최근 초도 물량이 완판된 켄보 600을 예로 들며 "어느 나라 차가 아니라 어떤 차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동근 기자 foto@

'합리적 소비' 시장조사 주효

△처음부터 '켄보 600'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나

-"아직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다만, 켄보 600을 수입하기 전에 실시한 시장 조사가 주효했던 것 같다. 시장 조사 결과 요즘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안전성과 애프터서비스(AS)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때문에 우리는 충돌안전시험(NCAP)에서 별 5개로 최고 등급을 받은 켄보 600을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중국차라도 좋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물론, 켄보 600에서 가격은 빼 놓을 수 없다. 싼 가격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모두 적용했고, 초고장력 강판을 60%까지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켄보 600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차량을 벤치마킹한 차량이다. 마쓰다나 렉서스, 기아자동차의 모든 장점을 모아놨다."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중국산은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중국산이 저품질이라는 인식은 중국 기술을 아직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의 선입견이다.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은 2800만 대 규모다. 우리나라(약 180만 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커 가고,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 같은 시장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모두 들어와 있고, 현지 기업들과 합작하고 있다. 합작 기업의 기술이 전부 토종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품질 논란은 이제 옛날 얘기다. 차를 직접 타 보면 알 것이다. 중국 브랜드에 아직 부족한 것은 명성일 뿐이다."

△켄보 600을 구매한 고객층이 궁금하다

-"판매 경향을 조사해 보니 법인 구매가 생각보다 많았다. 타 브랜드의 차량은 법인 구매가 10% 미만인데, 켄보 600의 경우 35%나 됐다. 또한, 구매 고객층이 다양했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를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SUV·중고차·소형차·디젤·가솔린을 구매하려던 사람들도 켄보 600에 관심을 보였다. 합리적이고 실리를 챙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디서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다. 사용하려는 용도와 활용도가 중요한 것이다."

△대우자동차와 코라오를 거쳐 중한자동차 대표로 왔다. 중한자동차를 선택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잘하는 일이었고,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중국 출장을 다니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남보다 먼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중한자동차는 아무래도 차를 수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차를 고르는 안목과 더불어 국내 사정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자동차의 마케팅, 생산, 품질을 모두 담당하면서 그 업무에 능통하다고 자부한다."

더 작은 다목적 차량 수입 검토

△켄보 600에 이어 어떤 모델을 국내 도입할 계획인가

-"연말쯤 켄보 600보다 작은 크기의 콤팩트 SUV를 들여올 예정이다. 차량명도 켄보로 이어간다. 콤팩트 SUV는 '켄보 400'이나 '켄보 300'으로 결정할 생각이다. 또한 중국 북기은상기차의 대표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MPV(다목적 차량·통상 미니밴을 지칭) 수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내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인증 절차와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MPV 수입의 관건은 인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을 받고 있는 CK픽업트럭은 포터와 라보의 중간 크기 차량이다. 경차의 혜택은 못 받지만 소위 '옵션이 빵빵한 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라보도 내가 프로젝트를 담당해 애정이 많은 차이지만, 그것보다 더 괜찮은 차라고 생각한다. 보통 트럭의 경우 편의 사양이나 옵션을 적용하지 않기 마련인데, 싼 가격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이 대거 적용됐다. CK미니밴도 같은 맥락이다."

△켄보 600은 기본형이 1999만원에 불과하다. 가격 경쟁력의 요인은 무엇인가.

-"거품을 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차를 만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인건비와 부품 단가가 싸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단가가 비쌀 수가 없다. 또한, 독일이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임비도 절약된다. 타 수입차처럼 가격을 올려 팔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국내 사정에 맞지 않았다."

△현재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나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다. 우리보다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 쪽이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아직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량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논의해 보자고 했다."

1년은 지나야 공정한 평가 이뤄질 것

△올해 3000대 판매가 목표인 것으로 안다. 물량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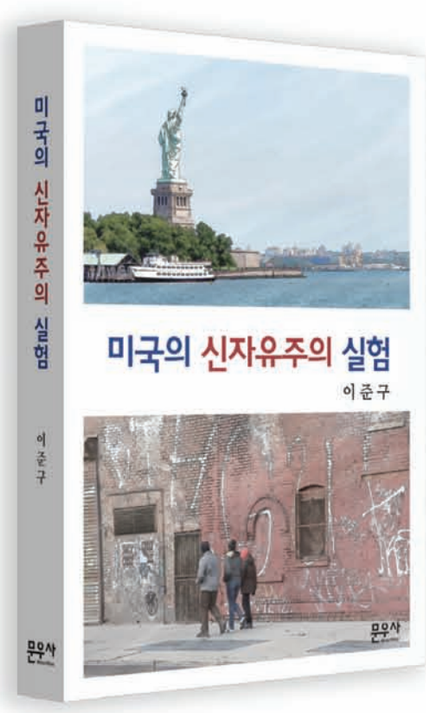
-"중국차의 위상이나 마케팅 능력이 더 향상돼야 한다. 아직은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중국차의 판매 추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1년은 지나 봐야 우리 차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역시나 관건은 물량 확보다. 목표를 다소 높게 잡기도 했지만, 물량 확보와 인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내 통관과 인증 일정에 맞게 분주히 준비해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북기은상기차가 차량을 생산해 수출하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20개국에 달한다. 주문 순서와 물량에 따라 북기은상기차가 물량을 배분한다. 주문이 늘면 물량 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기은상기차에 이어 다른 중국 브랜드도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다른 중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 단,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좋은 차여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산 자동차의 최고 걸림돌은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중국산 승용차를 수입한 첫 기업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미 인증, 네트워크, 부품 체계 등을 선점했다. 이후 국내에 들어올 다른 업체에 비해 3 ~ 4년 앞서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 고객관리팀장을 5년 동안 맡으며, 관리 데이터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때문에 고객 데이터 축적과 판매 네트워크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의 노하우는 더욱 쌓일 것이다. 후속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치러야 하는 기회 비용을 벌써 지불했다는 뜻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미국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에 울리는 경종
정부는 악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악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결코 닮지 말아야할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성숙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의 : 031-901-6542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아, 그 사건?… 내가 하겠단 느낌 확”



인터뷰 영화 ‘재심’ 강하늘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다 환상일 뿐이다’라는 책의 문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강하늘은 그래서 자신의 힘이 닿을 수 있는 ‘지금’에 충실한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애써 염려하지 않고, 돌아가지 못할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삶. 그러나 그가 ‘재심’에서 연기한 현우는 과거로 인해 미래가 저당 잡혔던 인물이었다. 억울하게 살해 누명을 쓰고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던 인물. 다만 현우는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고 드디어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한 개인의 힘을 믿는다”는 강하늘의 말처럼 현우의 진심을 믿는 개인과 개인의 힘이 모인 결과다.

△‘재심’은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건이다. ‘재심’이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 왠지 내가 하게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나리오를 열어보니 재밌게 쭉 읽혔다.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

△‘동주’에서는 세상에 없는 실존인물을 연기했다. 이번의 경우 픽션이 가미되긴 했지만 어쨌든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인물을 연기했다. 접근에 있어 어떻게 달랐나.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더 어렵고 무겁다고 느낀 건 윤동주 시인이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윤동주 시인은 어차피 세상에 없는 분이고, 그렇기에 표현하기에 더 자유롭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윤동주’라는 이름 석 자가 나의 자유를 억압했다. ‘과연 윤동주에게 잘 다가가고 있는 게 맞을까?’ 고민이 많았다. 반면 ‘재심’에서의 현우라는 캐릭터는 실존 인물 그 자체를 연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자유가 포함돼 있었다.”

△‘재심’이라는 단어 안에는 한 번 더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포돼 있다. 조금 다른 의미로 강하늘에게도 뭔가를 다시 판단 받고 싶은 일이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만약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다시 재평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행복과 감동을 주고 있다’길래 ‘그러냐, 진짜 감사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라는 생각. 순간 뭔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 삶의 모토가 ‘행복하게 살자’이지만 조심하려고 한다. 나 혼자 행복하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당신에게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일단 가까운 내 친구들. 그 친구들을 밑도 끝도 없이 믿는다. 배신해도 상관없다 싶을 정도로 믿는다. 그 다음으로 나는 나를 가장 믿는다. 그리고 한 개인의 힘을 되게 믿는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다. 부정적인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당신, 과거 지향적인 면은 없나.

“내가 좋아하는 책에 그런 문구가 있다.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다 환상일 뿐이다’라는 문구. 과거든 미래든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없다. 내 힘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지금밖에 없기에 지금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강하늘은 행복한가.

“그렇다. 행복하다, 지금!”

정시우 기자 siwoorain@

사진제공 오퍼스 픽쳐스

> 약촌오거리 사건서 살인누명 쓴 청년 현우役
>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때부터 관심 갖고 있어
> ‘동주’ 이어 두 번째 논픽션… 부담 덜고 연기
> 과거는 거짓, 미래는 환상… 지금에 충실할 뿐



머리엔 ‘왕관’
가슴엔 ‘주홍글씨’
김민희의 明·暗

홍상수와 김민희의 ‘불륜 스캔들’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김민희의 배우로서의 가능성과 행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베를린의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린 가운데 김민희가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다.

칸국제영화제, 베니스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수상한 것은 1987년 베니스국제영화제의 강수연(임권택 감독 ‘씨받이’), 2007년 칸국제영화제에서의 전도연(이창동 감독 ‘밀양’)에 이어 10년 만이다.

홍상수 감독의 19번째 장편영화인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인 영화감독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하는 한 여배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를 연상시킨다는 점으로 인해 일찍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국내에서 쏟아지는 스캔들에 대한 관심과 달리, 해외 영화인들은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주목했다. 실제로 김민희는 “저희 영화가 영화로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그것만으로 기쁘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김민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면서 “가짜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었다”라는 말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향후 방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날 김민희는 “상업적인 영화를 하는 건 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수상이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김민희의 국내 활동에 보이지 않은 제약이 걸린 상황. 하지만 김민희에겐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린다. 실제로 2015년 홍상수 감독과 함께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거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러브콜이 적지 않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아가씨’에서의 호연으로 칸 국제영화제를 찾기도 한 김민희는 이번 수상을 기점으로 해외 감독들과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김민희 스스로가 “상업적인 영화를 하는 건 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만큼,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의 행보보다는, 작가주의 영화 안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대중이 김민희의 사생활에 드러내는 실망감과는 별개로, 김민희의 배우로서의 향방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이하늬 ‘춤과 노래’
이러려고 아껴뒀구려
역대급 장녹수

배우 이하늬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기생’ 장녹수가 아닌 색다른 캐릭터를 그려내 눈길을 끈다. 이하늬는 국악 전공자답게 예인 장녹수를 그려내는 탁월한 재능으로 MBC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이하 ‘역적’)에서 호연을 펼치고 있다. 경국지색으로만 고정됐던 장녹수를 연산군 시대 예인의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이하늬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자 최적의 캐스팅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처럼 이하늬는 희대의 폭군, 연산(김지석 분)을 사로잡은 기생이기 전에, 능상 적결의 시대에 인간답게 살고 싶은 기생으로 태어났다.

그는 앞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내 전공(서울대학교 국악과) 덕분에 기생 역할이 종종 들어왔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패였기에 아껴왔다. 그 패를 ‘역적’에서 쓰게 된 만큼 뭐가 달라도 다른 장녹수를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약속대로 이하늬표 장녹수는 기존과 달랐다. 능상적결의 시대에 여성, 그것도 기생으로서 장녹수가 받았을 천대에 대한 애잔한 감정을 밑바탕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강단 있는 인물로 변화를 줬다. 또 기생 중에도 특출난 예인인 데다 희대의 폭군을 쥐락펴락하게 하는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출연을 확정 지은 후부터 창과 전통무용 수업을 다시 받았고, OST ‘길이 어데요’도 직접 참여했다. 숨은 노력 덕분에 예인으로서 인정받는 공화의 모습은 실제 이하늬의 모습과 접점을 이뤘다. 극 중 서정적인 소리와 우아한 부채춤을 선보인 이하늬는 장녹수의 매력을 드러낸 인상적인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이하늬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작품 속에 녹여냈기에 더욱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역사에 기록된 장녹수의 흔적을 따라가면서도 전혀 새로운 해석으로 쌓아올린 이하늬표 장녹수는 전에 없었던 기구한 서사와 함께 시청의 재미를 더한다. 이하늬의 열정과 재능으로 더욱 더 특별해질 장녹수가 ‘역적’ 흥행을 좌우할 키포인트로 자리잡았다. 서현진 기자 sssw@

새로운 도전? 종편 따라하기?
KBS의 시즌제 실험



‘언니들의’·‘살림남’ 시작으로 총 4개 준비
시청률 부진 따른 개편 성격… 흥행 미지수

“KBS 예능국은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KBS2 ‘살림하는 남자들’(이하 ‘살림남’)이 시즌2로 새롭게 거듭났다. 그보다 앞선 17일 ‘언니들의 슬램덩크’도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새 멤버를 소개했다. KBS 예능국은 이들 프로그램 외에 ‘트릭 앤 트루’, ‘비타민’ 등의 프로그램도 시즌2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시즌제 프로그램만 4개나 된다.

이런 시즌제 도입에 대해 김진홍 KBS 예능국장은 기자간담회, 제작발표회 등을 통해 “KBS 예능국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의 시즌제 도전이라는 점에서 KBS의 새로운 시도는 방송가 안팎에서 화제다.

시즌제는 케이블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이미 시청자들에겐 익숙해진 방송 스타일이다. 하지만 지상파에서는 시즌제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다. KBS 경우 ‘해피투게더’, ‘1박2일’ 등이 시즌3까지 이어왔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시즌제라기보단 프로그램이 활력을 잃으면서 진행된 개편에 가까웠다.

‘언니들의 슬램덩크2’ 연출자 박인석 PD도 “지상파에서 회차를 정해놓고 시즌제를 선보이는 것이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사례인 만큼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잘돼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숨기지 않았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는 16회 시한을 정해놓고 첫 방송을 시작했다.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가 하나의 걸그룹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지만 KBS의 시즌제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KBS가 시즌제를 하겠다고 택한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종영 직전 시청률과 광고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tvN 나영석 PD의 ‘꽃보다’ 시리즈와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과 JTBC ‘히든싱어’ 등 잘된 프로그램을 시즌으로 이어가는 케이블, 종편과는 탄생 배경부터 다르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만 종영 기한을 정해놓았을 뿐 ‘살림남’ 역시 시간대와 멤버 구성만 바뀐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다. 시즌2가 제작된다고 했지만 ‘트릭 앤 트루’와 ‘비타민’의 방향성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때문에 KBS 예능국의 시즌제 도입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방송하면서 쌓인 인지도를 갖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KBS의 시즌제와 달리 케이블과 종편에서는 탄탄하게 시즌제를 준비하면서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켰던 Mnet ‘프로듀스101’은 올해 시즌2 첫 선을 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tvN 간판 ‘쿡방’으로 자리잡은 ‘집밥 백선생’은 지난 14일 시즌3를 시작했고, 마니아 층이 탄탄했던 JTBC ‘크라임씬’도 올해 시즌3를 선보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트라임씬’ 책임 프로듀서 윤현준 CP는 “새 시즌을 그냥 시작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셨던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즌3 전 회에 걸친 사건을 모두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숨소리 하나까지 간절하게…아이돌 음악에도 '진정성' 있죠

신곡 '나를 기억해주세요'로 컴백 칠학년일반

"미안해. 고마워. 잘 지내요. 항상 날 보며 웃어준 그대. 기억해. 그리고 잊지 마요. 우리들의 추억을."

걸그룹 칠학년 일반이 지난달 발표한 신곡 '나를 기억해주세요'는 이별에 대한 암시로 가득하다. 노래가 공개된 후에는 팀 해체설이 제법 설득력 있게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칠학년 일반은 "해체는 절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1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녹음해 둔 곡은 많은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장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백세희)

지난 2014년 '오빠 바이러스'로 데뷔한 칠학년 일반은 이듬해 EP 음반 발매 이후 약 1년 2개월 동안 국내 활동을 쉬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칠학년 일반이 찾은 답은 바로 '진정성'이다.

> 데뷔 3년차 인지도는 아직…
> 1년여 공백기에 해체설도
> 걸그룹으로 최선의 길 찾아
>
> 처음 도전하는 발라드 장르
> 녹음중 감정 북받쳐 눈물
> 마음 담은 노래 기억해주세요



"데뷔 3년차가 됐지만 인지도는 아직 낮아요. 아이돌 시장의 현실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멋진 음악이 밑받침돼야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세희)

데뷔 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라드 장르의 노래. 녹음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가사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멤버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맞잡은 손에서는 체온을 타고 뭉클한 마음이 함께 전달됐다.

"연습 초반에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속상하기도 했고요. 스튜디오 녹음을 할 때에는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음정에 예민해지기도 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노래이니 제목처럼 듣는 분들이 우리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빛나)

"연주되는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숨소리부터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녹음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성과 고생이 많이 들어간 노래에요. 간절하게 불렀어요." (강민주)

칠학년 일반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한 대상은 부모님, 그리고 팬들이다. 백세희는 "팬들을 마주할 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늘 공존한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하면 내 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들 때도 있다"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었어요. 서두르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기다림이 많아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강민주)

"노력, 실력, 운…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시간의 무게가 마냥 무겁지만은 않아요. 조급하게 마음먹어서 될 일이었다면 진즉에 됐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 나갈 겁니다. 먼 훗날 뒤를 돌아 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요." (백세희)

글/이은호·사진/윤예진 기자 wild37@





레드벨벳 '루키' 단어 66번 반복…어느샌가 흥얼흥얼
이번엔 복고풍 장르…소녀들의 귀여운 초대 트와이스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두 대형 기획사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차트 역주행에 이어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트로피 수집을 시작한 레드벨벳과 주요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위협적인 기세로 돌아온 트와이스의 이야기.

◇레드벨벳 '루키(Rookie)'= 레드벨벳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아주 잘 구축한 그룹 중 하나다. 어딘지 모를 으스스한 분위기가 콘셉트 저변에 깔려 있는 레드벨벳은 이번 '루키'를 통해 엉뚱한 4차원 속 소녀의 느낌을 강조했다. 다양한 음의 변주가 인상적인 '루키'는 중독되지 않고는 못 배기는 후크송의 성격을 완벽히 갖췄다. "불쑥 들어와 위태롭게 흘린" 낯선 이에게 레드벨벳은 왜 자길 흔드는 건지 물으면서도 "바짝 다가오라"고 말해준다. 4차원 세계로 앨리스를 인도하는 시계토끼처럼, 레드벨벳은 그렇게 리스너를 '루키'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 (김예슬 기자)

'루키'는 노골적으로 중독성을 지향하는 노래다. 3분 17초가량의 러닝타임 동안 '루키'라는 단어가 무려 66번, '느낌'은 16번 반복된다. 덕분에 한두 번의 청취만으로도 노래는입에 찰싹 달라붙는다. 그러나 전작 '러시안 룰렛'과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러시안 룰렛'이 대중적인 멜로디와 실험적인 비주얼을 조화시켜 차별화에 성공했다면, '루키'를 들은 후 남는 건 '루키 루키'뿐이다. 예측 가능한 가사 내용 또한 소구력을 떨어뜨린다. 이러나저러나 방송 활동 돌입 이후 역주행 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아, 중독성 전략은 확실하게 먹힌 셈이다. (이은호 기자)

차트 역주행…레드벨벳 '루키'

엉뚱한 4차원 소녀 매력속으로
중독성 강한 후크송으로 인기
예측가능 가사 호소력 떨어뜨려

음원 올킬…트와이스 '낙 낙'

하우스비트에 팝·디스코 버무려
치어업·티티…이번엔 '낙 낙'
타이틀마다 비슷한 느낌 아쉬워

◇트와이스 '낙 낙(Knock Knock)'= 컬러팝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굳혀 오던 트와이스가 이번엔 복고풍 리듬을 차용해 돌아왔다. '낙 낙'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보컬은 흥을 잡는 건 물론, 중독성을 배가시킨다. "내 마음이 열리게 두드려 줘"라고 말하는 트와이스의 귀여운 초대를 어찌 거절할 수 있을까. 트와이스의 매력적인 이끌림에 팝과 록, 디스코 등이 섞인 신나는 하우스비트는 생동감을 부여했다. 다만, '우아하게(OOH-AHH하게)'-'치어 업(CHEER UP)'-'티티(TT)'로 이어지는 타이틀 계보에 '낙 낙'은 어딘가 지울 수 없는 자가복제의 느낌을 줘 아쉽다. (김예슬 기자)

3연타 흥행의 주역 블랙아이드필승과 잠시 이별하고 JYP 퍼블리싱 소속 이우민 작곡가와 손을 잡아 탄생시킨 노래. "하우스비트를 기반으로 팝, 록, 디스코를 믹스했다"는 설명이 일견 전작에서부터 이어져온 컬러팝 기조를 떠올리게 만들지만, 한층 단순하고 직선적인 구성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발음을 흘려 가사의 '씹는 맛'을 강조했던 전작과 달리, '낙 낙'은 가사의 '전달력'에 힘을 쏟는다. 요컨대 순간적인 흡인력보다는 흐름에 중심을 두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읽힌다. 비슷한 듯 달라진 트와이스를, 대중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은호 기자)

김예슬·이은호 기자 yeye@

방탄소년단, 요즘 대세라는데…

아이돌 흥수시대…시작은 미약
청춘의 방황·성장통, 그리고 희망
스토리텔링에 화려한 퍼포먼스
데뷔 4년차 시상식·앨범 판매 올킬

최근 가요계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성과를 내고 있는 그룹은 단연코 방탄소년단이다.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쓰는 건 물론, 높은 앨범 판매량과 함께 유의미한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작은 다소 미약했다. 대형기획사가 아니었고 아이돌 그룹은 이미 차고 넘쳤다. 레드오션에서 보이그룹으로 발을 내디딘 방탄소년단은 자신들만의 주력 콘셉트를 '청춘'으로 잡고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는 '청춘의 성장'을 그리는 스토리텔링과 퍼포먼스, 트렌디한 사운드 등이 주효했다. 청춘이 주는 활기찬 이미지를 기본 골자로 방탄소년단은 청춘의 방황과 갈등, 성장통, 희망 등을 시청각적으로 녹여내며 팬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서정적이거나 혹은 강렬하게 발현되는 이들의 노래는 리스너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보는 맛을 더했다. 이에 더해 만국 공통의 정서를 자극하는 청춘 성장 스토리는 해외 팬덤을 결집시키는 요소가 됐다. 공감 가는 가사도 한몫했다.

국내외 팬덤이 탄탄하게 구축되며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앨범 '윙스'를 선주문량만 50만 장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13일 발매한 '윙스 외전'의 선주문량은 이보다 20만 장 증가한 70만 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외전 앨범 타이틀 곡 '봄날'은 미국 아이튠즈 차트 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미국 아이튠즈 차트 톱10에 든 K팝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말 가요시상식에서는 대상 격의 상들을 휩쓸었다.

김예슬 기자 yeye@



'0시 음원 발매' 제재…차트 공정성 찾을까

앨범 사재기·순위 왜곡 지적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계
시간대 변경…차트 운영 개편
음반업계 "지나친 간섭" 불만

'추천제' 폐지 이후 1년, 이번엔 실시간 차트 개혁이 이뤄진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실시간 차트 집계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발매된 음원의 스트리밍 내용은 다음 날 오후 1시 실시간 차트부터 반영된다. 멜론과 벅스는 오는 27일 0시부터, 지니는 같은 날 낮 12시부터 변경된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차트 개편은 이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대 실시간 차트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음원 사재기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팬덤의 '총공(특정 시간에 집단적으로 음원을 스트리밍·다운로드하는 것)'이 유리한 자정에 신곡을 발표하곤 했는데, 차트 운영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자정 발매의 메리트가 사라졌다. 점심시간인 정오(낮 12시) 혹은 퇴근·하교 시간인 오후 6시 발매가 새로운 '대세'가 될 전망이다.

의도는 기특하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유인은 실시간 차트가 각 기획사의 주효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음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탓에 사재기 비용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차트 집계 시간 조정 정책은 두 가지 유인 중 어느 쪽도 감소시키지 못한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추세는 아니다. 바른음악협동조합 관계자는 "실시간 음원 차트는 음반 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사실상 필요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정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따뜻한 금융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신한이 함께 갈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가족과 떠났던 여행지, 업무차 떠났던 출장지
우리의 삶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글로벌 세상을 위해
신한은 먼저 나아가 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전세계 20개국 161개 네트워크로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장하나 "하나 더" 박인비 "내가 더"… V여신은?



올초부터 샷 감각 오른 장하나 2연승 도전

박인비·전인지 부상 털고 1위 탈환 시동

앙희영·유소연·김효주 시즌 첫 우승 노려

한국 톱 랭커 총출동 '별들의 전쟁' 시작

이번 주말은 골프채널을 JTBC골프로 채널을 고정시켜도 좋을 듯하다.

'특급 루키' 박성현(24·하나금융그룹)을 제외하고 한국의 톱 랭커들이 총출동해 '별들의 전쟁'을 벌인다. 무대는 23일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 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6642야드)에서 개막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총상금 160만 달러).

이번 대회는 장하나(25·BC카드)의 2주 연속 우승, 박인비(29·KB금융그룹)의 복귀전, 메인스폰서 없이 전인지(23)가 어떤 성적을 낼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 대회는 세계여자골프랭킹 1~9위가 모두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부상 이후 복귀전을 치른다. 박인비는 지난 12일 일찌감치 태국으로 들어가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현지 적응에 들어갔다. 지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에 팬들에게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박인비는 명예의 전당 최연소 입회와 함께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어 걸었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손가락 인대 파손으로 시즌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세계 랭킹도 2년 전 1위에서 12위로 밀려난 상태다. 상금 랭킹은 69위(25만3000달러)에 그쳐 50위 이내 선수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주최측 초청을 받아 어렵사리 출전했다. 미국에서 7주간 전지훈련과 재활을 마친 박인비는 혼다 타일랜드를 세계랭킹 1위 탈환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통증 없이 플레이하고 있다." 박인비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2013년 우승 이후 다시 한 번 우승컵을 손에 쥘는지 궁금하다.

랭킹 4위로 한국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전인지는 이 대회에서 시즌 첫 대회를 치른다. 메인스폰서를 아직 잡지 못해 자신의 이니셜인 영자 'C' 모자를 쓴 전인지는 지난 18일 현지에 도착해 일찌감치 샷을 다듬어 왔다. 전인지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다가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전인지는 혼다 타일랜드를 시작으로 7개 대회에 연속 출전한다.

신인왕과 함께 시즌 최저타수 1위를 차지한 전인지는 지난해 최고의 루키시즌을 보낸 데 이어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 문턱을 넘기를 '플리잉 덤보'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전인지는 지난해 11월 투어챔피언십을 마치고 나서 시즌 내내 괴롭혔던 허리 통증 완치에 매달리며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 타이틀을 손에 쥔 장하나는 호주에서 곧바로 태국으로 건너가 코스 매니지먼트를 끝냈다. 장하나는 처음 출전한 작년에도 공동 8위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장하나는 내친 김에 연속 우승에 욕심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전훈을 착실히 한 덕에 샷 감각이 물이 오른 상태다.

2015년 우승자 양희영(28·PNS)과 메인 스폰서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즌을 시작하는 유소연(27·메디힐)도 강력한 우승 후보. 겨울이면 태국에서 전훈을 하는 김효주(21·롯데)와 세계랭킹 8위 김세영(24·미래에셋)도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클럽, 코치, 스윙을 모두 바꾼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시즌 첫 경기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에 그쳤다. 겨우 컷을 통과한 리디아 고는 공동 46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태국 팬들은 이 대회와 인연이 깊은 장타자 아리야 주타누간(태국)의 우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올해 11회째를 맞지만 아직 태국 선수 우승이 없다. 태국은 주타누간 자매인 모리야와 만언니 폰아농 패트럼, 파나라트 타나폴부냐라스 등 프로 선수 4명, 아마추어 선수 3명 등 모두 7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70명만 출전하고 컷오프 없는 대회다. 지난해 상금랭킹 순으로 60명이 정해졌고, 초청선수 1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JTBC골프는 26일까지 4일간 생중계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캘러웨이 퍼터의 혁신 오디세이 '웍스 17' 출시

마이크로힌지 인서트 기술 적용

부드러운 타구감·완벽한 볼 구름

캘러웨이골프(대표이사 이상현)가 더욱 부드러운 타구감과 완벽한 볼 구름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웍스(WORKS)17' 퍼터를 선보였다. 이는 퍼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마이크로힌지 인서트 기술을 적용한 것. 모든 퍼터는 퍼팅 시 볼의 직진성 향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퍼팅 시 볼이 구르지 않고 미끄러지는 스퀴드 현상을 줄여야 볼이 똑바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디세이 웍스 17은 마이크로힌지 인서트 기술을 그 해답으로 제시했다.

마이크로힌지 인서트는 미세한 경첩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 페이스를 우레탄 보디에 삽입시키는 정교한 몰딩 공정을 통해 2종의 인서트 페이스를 하나의 보디로 결합한 기술이다. 임팩트 시 탑스핀을 발생시켜 스퀴드 현상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타구감은 물론 완벽한 볼 구름을 제공한다.

또한 웍스17에는 프로 투어에서 검증 받은 버사 정렬 기술과 웍스 버사의 빅 티 정렬 기술의 장점들을 모아 새롭게 탄생시킨 뉴 버사 정렬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일관되고 선명한 라인을 제공하여 보다 쉽고 정교한 정렬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웍스17은 일반 퍼터보다 더 일관된 퍼팅 스트로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카운터밸런스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일반 퍼터보다 무거운 헤드와 그립이 퍼팅 시 안정감을 제공하고 큰 근육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일관된 퍼팅 스트로크를 제공해준다.

웍스17의 헤드 모양과 디자인은 한층 더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1번, 1번 와이드, 2번, 7번, 9번, 알라인, 알라인 센터샤프트, 브이라인 팽, 투볼 등 총 9가지의 다양한 헤드 타입이다.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한 헤드 디자인을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오디세이 브랜드의 뛰어난 디자인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것이 캘러웨이 측 설명이다.

총 2가지 그립이 있어 골퍼들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테이퍼(Taper) 타입의 슈퍼 스트로크 피스톨 GT 1.0 그립과 팁(Tip)과 버트(Butt)의 두께가 동일한 슈퍼 스트로크 미드 슬림 2.0 그립이다. (카운터밸런스 옵션은 일반 그립보다 더 길고 무거운 그립이 장착됨)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오디세이 '웍스 17' 퍼터

악성 슬라이스와 생크 유발하는 손목의 동작

김수현의 여성골프레슨

볼 맞는 느낌이 좋지만 슬라이스가 나고 볼의 탄도가 높은 골퍼는 손목의 동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팩트 순간과 폴로스루 동작에서 잘못된 사진과 같이 오른 손등이 바닥을 보고 있으면 클럽페이스가 닫히지 못하고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클럽페이스는 스윙 중에 열리고 닫히는 동작 중간에 볼이 맞으며 스퀘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동작과 같이 폴로스루 동작에서 왼 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클럽페이스가 제대로 닫히게 되어 볼의 구질이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클럽페이스와 손의 모양은 같기 때문에 손동작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이 아닌 스쿠핑 동작 즉, 퍼 올리는 동작이 되어버리면 임팩트 직후 페이스가 닫히지 못하며 열린 상태로 볼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손목이 젖혀지며 클럽페이스의 각도는 기존 각도보다 더 높아지며 뜨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블로 동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볼이 지나치게 높이 뜨고 우측 혹은 생크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피니시 동작에서도 오른손목이 과도하게 몸 쪽으로 접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동작이 잘되지 않는다면 다리를 모으고 작은 스윙부터 천천히 연습을 해 보도록 합니다. 몸통의 회전과 움직임은 스윙에 맞게 작게 움직이고 클럽 페이스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하며 연습하는 것이죠. 어프로치 스윙과 같습니다.

올바른 사진의 동작과 같이 손등이 지면을 보지 않고 정면을 유지하며 볼을 치는 것이죠. 클럽페이스 각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때는 왼손등이 정면, 폴로스루 때는 오른손등이 정면을 보고 있도록 하는 것이죠.


클럽페이스 올바른 자세(왼쪽)와 잘못된 자세.

이때 주의할 것은 손목만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깨 회전은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클럽페이스만 여는 것은 잘못된 동작임으로 반드시 어깨턴과 함께 테이크 백 동작에서 클럽이 스퀘어로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1분 골프레슨 교습가

"라운드 중 손으로 눈 비비면 다래끼 위험"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지난주 진료실을 찾은 최 씨(52)는 지난 주말 필드 라운딩을 다녀온 후 눈이 간질간질하더니 갑작스러운 붓기와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흔히 젊은층에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중장년층에도 나타나 일상을 괴롭히는 다래끼였다. 다래끼는 계절에 상관 없이 발생하며 통증이 크진 않지만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안과적으로 큰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계륵 같은 질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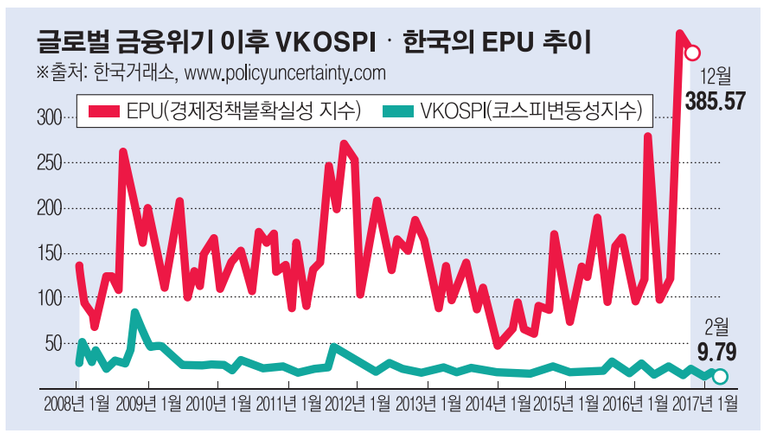
다래끼는 눈꺼풀에 있는 여러 분비샘에 발생한 염증을 아울러 말한다. 염증 증상이 있는지, 어느 분비샘에 생겼는지 등에 따라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겉다래끼는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염증이 생긴다. 눈이 붓고 염증이 단단해져 피부를 압박할 만큼 통증이 발생한다. 속다래끼는 마이봄샘에 생긴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겉다래끼보다 깊은 곳에서 생긴다.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빨간 점막 조직에 노란 농양이 생겼다면 속다래끼로 볼 수 있다. 콩다래끼는 눈가장자리 밑, 일명 애교살이 있는 부근에 단단한 것이 만져지지만 붓기나 통증 같은 염증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통 다래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고름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다래끼가 심해진 뒤 항생제 등을 복용해도 증세가 나아지기 어려워 수술적인 방법으로 처치해야 한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바닥이 오히려 불안”…코스피 공포지수의 역설

변동성지수 9.79로 역대 최저
“너무 낮으면 과도한 낙관 가능
위험자산 선호 부추길 수도…
낮은 변동성 후 큰 변동성” 우려
“시장 반영…기우 불과” 시각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에 변동성을 더 키울 요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VKOSPI는 전일 대비 0.04포인트 오른 9.7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70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종가기준으로는 22일 기록한 9.72포인트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VKOSPI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을 토대로 한 달 뒤 지수가 얼마나 변동할지 예측하는 지표다. 미국 변동성지수(VIX)에 비유되는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린다. VKOSPI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데는 튼튼한 기초 여건을 토대로 코스피가 안도랠리를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이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2107.63을 기록하며 2015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최대 적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일단 증시에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VKOSPI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 지수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2011년 4월에도 17~19포인트를 오갔다.

VKOSPI는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와 반대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 수준이 ‘적정선’을 벗어났다는 데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변동성지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변동성 또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범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낮은 변동성 뒤에는 결국 큰 폭의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다”면서 “VKOSPI와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0.7에서 -0.9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시 말해 큰 변동성이 왔을 때 코스피 지수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변동성지수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경옥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모두 실제 불확실성이 상당함에도 변동성지수가 장기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낮은 변동성지수에 안주하고 있는 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변동성 지수가 어느 순간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VKOSPI를 비롯한 변동성지수의 왜곡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를 나타낸 VKOSPI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 등 실제 정책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정책불확실성지수(EPU)는 지난해 말 기준 390포인트로 지난 3년간 7배 가까이 치솟아 VKOSPI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남경옥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증시 공포지수가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방향성만 참고하는 정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동성지수 바닥론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VKOSPI의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최근 시장 자체 상승세를 감안하면 변동성이 낮아진 것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중대 공시위반 63건 과징금 22억원 부과

금감원, 작년 185건 제재
발행 공시위반 10배 늘어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95곳에 대해 185건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부문별로는 공시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총 적발건 중 34.1%)에 대해 과징금 2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28건(15.1%)을 증권발행 제한 조치했다. 위반 수준이 경미한 66건(35.7%)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줬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28건(15.1%)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공시위반 점검과 조사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적발·조치 건수가 2015년 대비 59건(31%) 증가한 영향이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5년 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은 54건(29.2%)으로 전년 69건(54.8%)에서 줄었다. 정기보고서 위반은 51건(27.6%)을 기록했다.

공시의무 위반 기업 중 비상장사는 52개사(131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9사(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4사(16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악의적인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CEO와 茶한잔 홍 원 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

〈온라인 팟캐스트〉

“대형사보다 한 발 빨리”…투자자 부르는 ‘이리온’

작년 말부터 운영…고객 궁금증 알기 쉽게 설명
직원과 사색·대화…모든 사업부 고르게 수익



“이리 오너라~ 이리온. 윤센(리서치센터장), 윤지호입니다. 장사에 관심이 많아 외식업계에 있다가 온 송셰프 송치호입니다.”

‘이·리·온’은 이베스트 리서치 온라인 팟캐스트의 줄임말이다. 투자자와 접점이 많지 않은 리서치 센터장부터 ‘윤센’이라는 편한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대중이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증권시장 현안을 담았다. 애널리스트가 직접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을 이어간다. 20회 차로 시즌1을 마감한다는 소식에 17회 차 ‘제약주의 모든 것’편 댓글에는 “방송 계속해 달라. 주거래 계좌도 변경했다”는 청취자들의 애정 섞인 협박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리온을 내놓은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은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영업과 지원 부서에서 모두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민하도록 독려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는 듯하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다른 증권사 대표들에 비해 언론 노출이 많지 않아 기자들 사이에서는 ‘은둔형 CEO’로 통하기도 한다. 이런 별칭에 홍 사장은 “은둔형은 아니다. 회사보다 사장의 유명세를 더 내세우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언론에 공개한 홍 사장의 신년사도 ‘대외 홍보성’이라기보다는 직원들과 회사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향으로 꽉 차있었다. ‘철저하게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라’, ‘당장 목표 달성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임직원이 함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홍 사장의 사색은 주로 걷기와 대화를 통해 이뤄진다. 2015년 신입사원 20여 명과 함께 북한산에 오른 일이 대표적이다.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한 증권업계에서 보기 드문 행사여서 눈길을 끌었다. 점심 때도 가급적 여의도 공원을 가로질러 걸으며 틈새 운동 겸 사색을 하고 직원과 대화하는 것이 홍 사장의 취미다. 홍 사장은 “지난해 모든 사업부가 고르게 수익에 기여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대형사보다 ‘찰진’ 모습을 보여줘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베스트와 홍 사장의 “이리온” 부름에 올해는 더 많은 투자자가 화답할지 주목된다. 정다운 기자 gamja@

내달 7일 상장 폐지 앞둔 한진해운

정리매매 첫날부터 곤두박질

1억400만株 거래…예년 4배 폭증

파산 선고가 내려진 한진해운 주가가 정리매매 개시 첫날부터 곤두박질쳤다. 아울러 거래주식 수도 폭증하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23일 주식시장에 따르면 20여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한진해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26%(470원) 급락한 310원에 장을 마감했다. 420원에서 출발한 주가는 장중 한때 3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날 거래주식 수는 1억404만9406주(거래대금 372억1300만 원)였다. 이는 비교적 정상 거래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 규모(2772만1093주) 대비 4배 가까운 수준이다.

한진해운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7거래일간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그 이튿날인 내달 7일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시 거래소도 한진해운 측에 파산절차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다. 다만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 이상 급등락할 수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리매매 기간을 기다려온 개미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정리매매는 가격 상승 제한폭이 없고 가격 움직임이 빨라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쪽박을 찰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은 단순 상장폐지가 아닌 파산이므로 매수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한진해운에 투자했던 개미들에게 남는 것은 휴지 조각뿐인 셈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엔미래보고서 시리즈 8년간의 중요예측만 모은 핵심판

미래 30년을 살아갈 길잡이

“불황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10년 후에도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100세 시대라는데… 퇴직하면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인공지능한테 일자리 다 뺏긴다는데, 우리 아이 뭘 가르쳐야 하나?”

• 피할 수 없는 변화 2030-2050 메가트렌드
• 미래에 사라질 것들 2020년 한국에서 사라지는 7가지 | 2030년에 사라지는 11가지 | 일자리를 빼앗는 파괴적 기술들
• 미래에 생겨날 것들 미래 유망 직업 54 | 인공지능과 로봇에 뺏기는 일자리 대안 | 10가지 핫 미래트렌드

10년 후 먹고살 고민부터 30년 후 편안한 노후 실현까지
당신의 미래 생존율을 끌어올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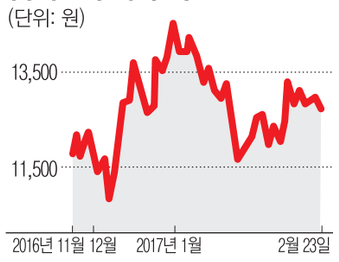
세계미래보고서 2030-2050
박영숙·제롬 글렌 | 648쪽 | 22,000원 | 교보문고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젬백스, 알츠하이머 치료제 'CV1001' 개발 날개



젬백스 주가 추이
(단위: 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과 협약…근본적 치료제 주목
글로벌 임상시험·미국 시장 진출 위해 관련 연구 박차

젬백스앤카엘은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과 '텔로머라제 유래 펩타이드인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젬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연구를 수행하며, 나아가 글로벌 임상시험, 특히 미국 내의 임상시험계획승인(FDA IND)을 위해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질병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발병기전을 가지고 있어 치료법 개발이 어려운 병 중 하나다. 현재 상용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들이고, 개발 중인 약물들은 단일 기전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반면, GV1001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 억제, 항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기전이 확인되어 근본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기대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단일기전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의 잇따른 실패로 GV1001의 다기능적인 효과(multi-functional effect)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사장(오른쪽)과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단장(왼쪽)이 연구개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젬백스앤카엘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개발 분야를 지원해 온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R&D 경계를 초월한 범부처 전주기 국가 R&D사업이다.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다.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바이오사업본부 사장은 "이번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과제 연구를 통해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약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치료제로서 GV1001의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할 것이며,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와 미국시장 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와이제이엠게임즈, 생생한 가상현실 '입이 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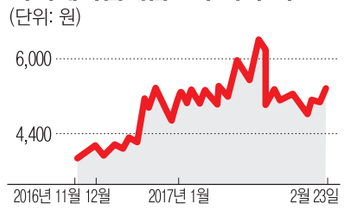
IGS와 VR 콘텐츠 지원 MOU
전시·영상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

와이제이엠게임즈는 게임 론칭 컨설팅 토털 솔루션 전문기업 IGS와 VR(가상현실)사업 관련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와이제이엠게임즈와 IGS 양사 간 가상현실 게임 및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GS는 와이제이엠게임즈가 보유한 VR게임들에 대해 VR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QA관련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등 최초로 VR콘텐츠 전문 QA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와이제이엠게임즈 주가 추이
(단위: 원)



IGS는 2005년 설립 이후 다년간의 게임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게임사에 양질의 서비스 토털 솔루션과 게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니터링 자동화 기반의 고도화된 솔루션을 선보이며, 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와이제이엠게임즈와 계열사인 YJM VR, SVS(Seoul VR Startups)의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시장에서의 VR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IGS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통해 VR QA 표준화와 VR QA 지원 사업을 게임분야 이외에도 전시, 영상 및 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제이엠게임즈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VR·AR(증강현실) 플랫폼이 확장됨에 따라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국내외 게임 서비스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는 IGS와 협업을 통해 VR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글로벌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SGA솔루션즈 매출 157%↑
5년 연속 실적 '신기록 경신'

매출 495억·영업이익 53억 달성
계열사와 보안사업 시너지 극대화

통합보안솔루션 기업 SGA솔루션즈가 5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95억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7% 성장했고, 영업이익 52억77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5년째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SGA솔루션즈는 공격적 시장 확대 및 사업 전략을 통해 2012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본업인 통합보안사업에 집중하면서 SGA계열사와의 동반성장과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서버보안 사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보안 사고로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로 창출되는 사업 기회를 매출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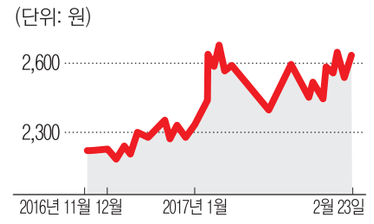
게이트웨이 방식 서버접근제어(SAC) 기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어, 커널 단계부터 통제가 가능한 보안솔루션을 공급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IT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기존 고객사의 사업 확대는 추가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응용 보안사업 또한 논-액티브(Non-Active) 솔루션 판매 확대와 함께 파이도(FIDO·생체인증 보안) 사업에서 SKT, 코스콤 등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매출 신장을 이뤄냈다.

SGA솔루션즈의 실적 상승세는 SGA계열사 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며 가속화됐다. SGA시스템즈가 수주한 대규모 스쿨넷 사업을 통해 엔드포인트(PC) 보안솔루션 등을 공급하며 계열사를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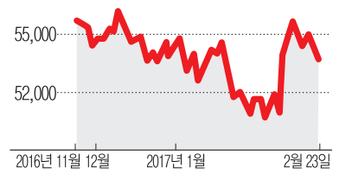
지난해 6월 종속회사로 편입해 수직계열화한 SGA임베디드는 임베디드 SW 및 디바이스 등 판매 증가로 200% 성장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SGA솔루션즈 연결 실적에 반영돼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영철 SGA솔루션즈 대표는 "올해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 융합보안 제품 출시, 기존 사업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로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SGA솔루션즈 주가 추이
(단위: 원)



GS 주가 추이
(단위: 원)



지에스이피에스 회사채 흥행
재생에너지로 수익 44% 껑충

지에스이피에스(GS EPS)는 이달 22일 3년물 회사채 1000억 원은 2.095%, 5년물 1500억 원은 2.565% 금리로 확정 발행했다. 이 회사의 희망 금리 상단에 비해 각각 26bp(1bp=0.01%포인트), 35bp 낮은 수치다.

전력 수급 안정화로 최근 포스코에너지(AA→AA-), 동두천드림파워(A+→A) 등 민자 발전사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둔 셈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GS EPS가 회사채 발행에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은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소를 통한 성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는 농작물, 축산분뇨와 같은 유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GS EPS는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전망을 2017년 1910억 원, 2018년 202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2016년 잠정 EBITDA인 1400억 원에 비해 44.2%(2018년 대비) 뛴 수치다.

이 같은 성장이 가능한 것은 이 회사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현물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해당 설비를 갖추지 못한 LNG 발전사들은 현물시장에서 REC를 사야 한다.

REC 시장 평균가격은 2015년 1MW당 10만4000 원에 형성됐다. 이 가격은 2016년 3~12월 14만2000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15만 원선을 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REC 수요가 늘면서 현물가격이 상승하자 GS EPS의 현금 흐름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에는 GS EPS와 동서발전만 보유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켐온, 이베스트스팩2호 합병… 4월 코스닥 상장

국내 최초 비임상시험 기업
"토털 헬스케어 기업 발돋움"

민간 비임상시험 전문기업 켐온의 코스닥 시장 상장이 확정됐다.

켐온은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베스트기업인수목적2호와의 합병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켐온은 오는 4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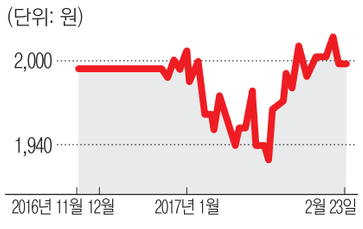
이베스트스팩2호 관계자는 "합병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10년 이상 흑자를 기록 중인 켐온의 안정성,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시장의 성장세, 화평법 시행에 따른 수혜, 임상CRO 시장 진출 등 향후 성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켐온은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연구개발 시설 확충, 사업 영역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6215만4524주, 시가총액은 약 1243억 원 규모며, 예정 합병기일은 오는 3월 28일이다.

송시환 켐온 대표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발판으로 CRO 분야를 넘어 글로벌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켐온은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최초 비임상 CRO로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농약 등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해 효능과 안전성(독성)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다.

이베스트스팩2호 주가 추이
(단위: 원)



권태성 기자 tskwon@

다중 면역진단 글로벌 인증 보유 '피씨엘' 증시 데뷔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제품 상용화
진단키트·시약 세계 시장 판매확대

의료용품 업체인 피씨엘이 코스닥에 입성했다.

24일 피씨엘에 따르면 2008년 설립된 피씨엘은 다중 체외질병진단(면역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고유의 면역 다중진단 원천기술인 'PCL SG CapTM'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중 면역진단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글로벌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바이러스 다중진단 임상과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는 현재 다중 면역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수혈전 고위험군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품 'Hi3-1의 프랑스, 브라질, 독일로 판매를 개시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시작했다.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신속진단(POCT) 제품인 인플루엔자 감염 진단시약 'Ai'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며, 다중암 동시 스크리닝 제품 'Cancer-6'의 유럽임상을 앞두고 있다.

또 원천기술(SG CapTM)을 이용한 다중진단키트 제작, 연구용 시약 판매, 약물 기전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체외 진단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체외 진단시장은 지난 2012년 443억3000만 달러 규모에서 내년엔 626억3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7.2%의 성장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주요제품인 'Hi3-1'은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민감도 100%, 특이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과 C형 간염(HCV)에서 각각 99.98%, 99.82%를 만족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에 김재철

〈에스텍파마 대표〉



김재철〈사진〉 에스텍파마 대표이사가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코스닥협회는 23일 '제18기(2017년도)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금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규 회장으로 이같이 선임했다.

나우주 엘엠에스 대표이사 등 총 4명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김병기 아이원스 대표이사 등 총 6명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협회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희망, 코스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코스닥기업의 성장동력지원 및 권익옹호,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역동성 지원을 올해 중점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 △연구정책 기능 강화를 통한 코스닥 정책지원 확대 △코스닥 기업을 위한 실무지원 서비스 확대 △코스닥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신성장동력 사업 지원 △코스닥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강화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한 교류 확대 △사회공헌 활동(CSR)을 통한 '사랑나눔' 실천 등을 선정했다.

김재철 신임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코스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SAMSUNG

세상 어디로든
갈 수 있어야
진짜 노트북

799g 초경량
뉴트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인텔 인사이드®. 더 뛰어난 성능 아웃사이드



900X3NI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탑재

All day, All night, Always

삼성 노트북 9 Always

intel CORE i3 7th Gen
intel CORE i5 7th Gen
intel CORE i7 7th Gen

*제품의 무게는 구성 및 제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배터리팩은 별매입니다. *인텔, 인텔 로고, 인텔 인사이드, 인텔 코어 및 코어 인사이드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텔사의 등록상표입니다. *해당 모델은 오프라인 매장 및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samsung.com/sec)